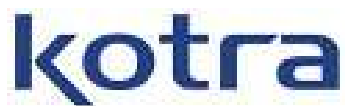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이탈리아

정보수정일자: 2009. 12. 24

작성처: 밀라노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4
- 한국과의 주요이슈 /6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8
- 주요 산업 동향 /12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8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9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1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3
 - 대한수입규제동향 /25
 - 관세제도 /26
 - 주요인증제도 /28
 - 지적재산권 /35
 - 통관운송 /40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5
- 외국기업 투자동향 /47
- 우리기업 투자동향 /5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1
- 진출형태별 절차 /54
- 투자입지여건 /5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1
- 조세제도 /64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6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67
- 물가정보 /70
- 바이어발굴 /71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5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77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0
- 이주정착 가이드 /81
- 출장가이드 /85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00
- 유관기관 웹사이트 /100

Italy



1995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이탈리아 공화국(La Repubblica Italiana)
위치	남부 유럽
면적	301,333 km ² (한반도의 약 1.36배)
기후	지중해성 기후
수도	로마 (Roma)
인구	6,0110만 명 (2009년 예상)
주요도시	로마(270만 명), 밀라노(130만 명), 나폴리(97만 명), 토리노(90만 명), 제노바(61만 명) 등
민족	이탈리아인(북부에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 / 남부에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소수 거주)
언어	이탈리아어(국경 지역은 독일어, 프랑스어, 슬라브어 병용)
종교	가톨릭(98%), 기타(2%)
건국(독립)일	1946년 6월 2일(이탈리아 공화국 선포)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Giorgio Napolitano) - 취임일 2006.5.15 -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08.5 취임)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EIU

나. 경제지표

GDP	1조8,530억 달러(2006년), 2조 1,380억 달러 (2007년), 1조 5,680억 달러 (2008년)
실질경제성장률	1.9%(2006년), 1.4%(2007년), 0.3%(2008년), 0.4%(2009년)
1인당 GDP	31,791 달러 (2006년), 31,576 달러 (2007년), 31,359 달러 (2008년)
실업률	6.8%(2006년), 6.0%(2007년), 6.7%(2008년), 6.5%(2009년)
물가상승률	1.9%(2006년), 2.6%(2007년), 2.4%(2008년)
화폐단위	유로(EUR)
환율	1.36 달러 =1Euro(2007년 평균), 1.47 달러 =1Euro(2008년 평균)
외화 표시 정부부채*	27,255 백만 유로(2005년), 10,740 백만 유로(2006년)
외환보유고*	255억 달러 (2005년), 257억 달러 (2006년), 260억 달러 (2007년)
산업구조*	농수산업(2.0%), 제조업(27.0%), 서비스업(71.0%)(2008년)
교역규모	- US\$4,171 억(수출), US\$4,287 억(수입), 무역적자 US\$116 억(2006년) - US\$5,078 억(수출), US\$5,011 억(수입), 무역흑자 US\$67 억(2007년) - US\$5,488 억(수출), US\$5,523 억(수입), 무역적자 US\$35 억(2008년)
교역품	- 수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신발, 귀금속 장신구 등 - 수입: 원유,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의약품 등

주 1: 2009년도는 추정치임.

주 2: 2009년 9월 기준 입수 가능한 수치임.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Eurostat, EIU

다. 한(韓)-이탈리아(伊) 관계

체결협정	○ 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1961) ○ 무역협정(1965) ○ 문화협정(1970) ○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1975) ○ 경제협력 협정(1984) ○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1984) ○ 이종과세 및 탈세방지 협약(1992) ○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 협정(1992) ○ 관광협력 협정(2000) ○ 한-이 사회보장협력 협정(2005)
주요연혁	○ 한-이 수호통상조약 체결(1884) ○ 국교 재수립에 합의(1956) ○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1959) ○ KOTRA 밀라노 KBC 개설(1966) ○ 주밀라노총영사관 개설(1982년 폐쇄) ○ KOTRA-ICE 업무협조약정 체결(1980) ○ 대한항공 여객기 서울-로마 취항(1991) ○ 김대중 전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2000) ○ 노무현 전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2007) ○ 로마노 프로디 전 총리 방한(2007) ○ 주밀라노 총영사관 재개설(2008)
교역규모	○ 2006년 - 42억 8,600만 달러(우리나라 수출) - 29억 1,600만 달러(수입): 무역흑자 13억 7,300만 달러 ○ 2007년 - 41억 5,100만 달러(우리나라 수출) - 35억 8,200만 달러(수입): 무역흑자 5억 6,900만 달러 ○ 2008년 - 35억 4,558만 달러(우리나라 수출) - 41억 5,138만 달러(수입): 무역적자 6억 580만 달러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선박, 타이어, 합성수지 등 ○ 수입: 의류, 의약품, 신발, 기계류, 자동차 부품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 이탈리아 투자 - 2008년: 6건, 6,000만 달러 - 1968~2008년: 124건, 3억 8,631만 달러 ○ 이탈리아의 대 한국 투자 - 2008년: 12건, 1,514만 달러 - 1962~2008년: 140건 1억 7,991만 달러
교민	총 교민 수 약 5,100여 명(대부분 유학생)

자료: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라. 국가 조직 및 정치 제도

1) 입법

- 위상: 국권최고기관은 국회임
- 권한: 정부에 대한 신임(의원내각제), 대통령의 임명, 대통령·장관에 대한 탄핵, 입법권, 예산과 결산의 승인, 선전(宣戰), 총동원, 조약비준 승인 등
- 구성: 상·하원의 2원제이며 권한은 같음.
- 국회의원 임기: 5년
- 피선거권: 상원 만 40세 이상, 하원 만 25세 이상
- 선거권: 상원 만 25세 이상, 하원 만 21세 이상

- 국회의원 수: 상원 315 명 (이 외 대통령은 종신 상원 의원), 하원 630 명
- 정기국회 소집시기: 매년 2 월, 10 월 (임시 국회도 있음)
- 법안제출: 정부·양원의원·주의회·국민경제노동회의가 제출할 수 있는 외에, 국민 발안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5 만 명 이상의 선거인 서명으로도 제출 가능

2) 행정

□ 대통령

- 위상: 나라의 원수이며 나라 통일의 상징
- 임기: 7 년
- 선출과정: 양원합동회의와 각 자치주지방의회의 대표 3 명을 더한 선거인에 의해 비밀투표로 2/3 의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다.
- 피선거권: 50 세 이상
- 권한: 법률의 공포, 관리의 임명, 외교사절의 접수, 조약비준, 군 지휘, 사면과 감형, 의회 해산 등을 담당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그것을 발의하는 장관의 부서(副署)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며, 부서한 장관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짐.

□ 내각의 구성

- 총리 및 장관의 임명
 - 총리는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정당지도자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장관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행정권은 내각에 있으며 내각은 양원의 신임을 얻어야 함.
- 각부장관
 - 외무, 내무, 법무, 재무, 예산, 국고, 국방, 교육, 공공사업 농업, 운수, 해운, 체신, 상공, 노동, 무역, 국가지주(國家持株), 위생, 관광 및 몇 명의 무임소장관 등이 있음.

3) 사법

- 사법부의 위상: 독립이 존중되고 재판관은 종신신분을 보장받음.
- 사법최고기관
 - 최고사법회의로서 1958 년에 설치되었으며 구성원의 2/3 는 통상판사가 전(全)판사 가운데서 선출하고 1/3 은 양원합동회의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대학 정교수와 변호사 중에서 선출됨. 최고사법회의는 재판관의 채용·보임·취임·승진 및 복무규율 등을 결정
- 지방간이재판소,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설치
- 헌법재판소
 - 헌법상의 쟁점에 관한 최종결정기관으로서 대통령, 양원 합동회의와 최고법정재판관에 의해서 각각 5 명씩 선출된 15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가와 주의 법률상 합헌성의 판단, 국가의 각 기관, 국가와 자치주, 각 자치주 사이의 권한 귀속에 관한 분쟁, 대통령과 각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정

마. 각 당의 정치적 성향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뒤 지금까지 정권이 61차례나 바뀌었으며, 총선 때마다 수십 개의 당이 난무하는 등 상시적 정치혼란을 겪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2008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아래와 같은 거대연정이 구성되었다.

- PDL(자유민주당, 중도우파연합)
 - FI(전진 이탈리아), AN(국민연합), LN(북부리그), MI(남부자치운동)
- 중도좌파연합
 - PD(민주당), IDV(이탈리아가치당), Radicali(급진당)
- SA(좌파무지개연합)
- UDC(중도연합)
 - UDC(기독교민주당), DC(중도민주당)
- 전진이탈리아당(Forza Italia)
 - 1994 년 언론재벌 Berlusconi 에 의해 창당, 우파보수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표방
- 국민연합(Alianza Nazionale)
 - 1948 년 구 파시스트계 인사들이 사회운동당(MSI) 설립, 1994 년 건전우파정당을 표방하는 AN 창당. 보수우익 및 민족주의 표방
- 북부리그(Lega Nord Italia Federale)
 - 1981 년 Lega Autonomista Lombardia 창당, 1989 년 북부 이탈리아 자치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연합. 북부 이탈리아 분리운동을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연방제 채택을 목표로 지방분권의 강화 주장
- 기독교민주당(Unione Di Democratici Cristiani)
 - 가톨릭적 가치, 온건, 연대, 유럽주의 중시
- 좌파민주당
 - 비폭력, 자유, 평화, 평등 이념과 유럽통일, 남북지방간 결속, 사민주의 표방
- 중도좌파연합
 - 풀뿌리민주주의, 만민평등주의, 자유민주주의 표방

2. 정치 사회 동향

2008년 1월 27일 좌파 연합의 내부 불화로 인해 기독교민주당이 연정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는 곧바로 이어진 총리 재신임 투표에서 과반수 획득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져 2년 간의 프로디 체제가 막을 내렸다.

2008년 4월로 총선에서 전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가 3선에 성공하였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프로디 정부가 실패한 유럽식 사회주의 모델을 뒤로 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루스코니 총리 재임 5년 동안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0.6%에 불과하였으며, 2005년도의 경우 사실상 제로성장인 0.2%를 기록하였다. 2006년도 수치는 프로디 집권과 함께 다소 호전되어 1.9%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EU 평균 성장률인 2.8%에 비하면 크게 낮은 상황이며, 2007년도의 성장률은 1.8%를 기록하였다. 2008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국내외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0.5%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유로존 국가 중 가장 큰 부채국인 이탈리아는, GDP의 107%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예전부터 유럽연합측과의 약속인 재정적자율 3% 이하를 지키지 못하는 등 고질적인 재정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불건전 재정은 이탈리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현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하는 상호 모순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EU 기준에 맞추어 정부의 재정적자 및 부채를 축소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운영하고 소득세를 현재의 43%에서 23~33% 수준으로 축소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7~8%에 달하는 실업률을 5~6% 대로 낮추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함께 연정을 구축하였던 LN당(Lega Nord, 북부지역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극우정당)과의 정치적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및 조세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08년 9월 18일 대규모 부채 등으로 경영난을 안고 있는 국적 항공사 알리탈리아 매각 협상에서 난항을 겪다가, 일련의 기업들로 구성된 연합체인 CAI를 통해 회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지난 정권의 정책과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에서 탈피하여 유럽중심주의 및 국제다자주의,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정책을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해나갔던 지난 정권과는 달리 EU를 탈피한 양자외교관계를 늘려가고 있다. 이는 때때로 EU의 정책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이탈리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한다.

지역적으로 같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중동지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등거리 외교를 바탕으로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아랍국가들의 경우 이탈리아가 에너지의존도가 높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이탈리아의 대외 정책은 대체적으로 아랍권과의 지중해 연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과의 우화관계 유지,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는 노선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사절단 파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대 아시아 진출 및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 좌파 정부가 대다수인 EU에 EU 확대 및 범 유럽 정부 구성 등 EU 강화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알바니아, 이라크, 터키, 쿠르드족 등 동구 및 중동으로부터의 불법 이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불법 고용,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2009년 2월에 시행된 사르데냐 주지사 선거에 대한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이탈리아 제1야당인 민주당(PD) 대표 벨트로니가 사임을 하고 그 뒤를 제2인자였던 프란체스키니가 이어 받았다. 벨트로니의 사임으로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견제 세력 약화를 우려하는 현지 언론의 목소리가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통상 현안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동 통상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EU간 통상 마찰 발생 시 EU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2009년 5.20일 기준 EU의 대한 수입 규제 현황은 반덤핑 규제 5건이다.

□ 반덤핑 규제 품목

- 2009년 5.2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5개 품목이다. 스테인레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09년 4.17일자로 종결되었다.

EU로부터 수입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산 수출품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PET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 덤핑 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나. 한국-이탈리아 기술 부문 협력 강화

- GM 대우, 이탈리아의 엔진 업체와 친환경 디젤 엔진 공동 개발(2005년)
 - GM 대우는 이탈리아의 디젤엔진 전문 개발 회사인 VM 모토리와 공동으로 2.0리터 SOHC 커먼레일 엔진을 개발에 성공하였다. GM대우는 동 엔진 개발을 위해 2004년 이탈리아 기업 VM 모토리와 디젤엔진 개발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엔진 개발 및 공장 구축 등에 총 4,750억 원을 투자하였다.
- 이탈리아 엔지니어링 업체와 공동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2005~2006년)
 - 대우 건설은 카타르 남부 메사이드 공업 단지 내 연간 70만 톤의 폴리에틸렌과 알파 올레핀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동 플랜트는 대우 건

설과 이탈리아 업체인 Tecnimont이 공동으로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을 총괄하는 EPC 형태로 공사를 수행한다.

- 대림 산업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하라-바젤이 발주한 6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 신축 공사를 이탈리아 테크니몽과 공동 수주하였다. 이 공사는 사우디 알 주베일에 연간 45만t 규모 폴리프로필렌 생산 능력을 갖춘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사업으로 대림 산업과 테크니몽의 지분율은 각각 54%, 46%이다.
- 2006년도에는 SK 건설이 쿠웨이트에서 이탈리아 테크니몽사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쿠웨이트 국영석유화학회사인 PIC(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로부터 12억 2,000만 달러(1조 2,500억 원) 규모의 방향족 제품 생산 플랜트(Aromatics Complex Project) 공사를 수주하였다.
- 디자인 부분 협력 강화(2006~2007년)
 - 삼성전자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인 베르사체 및 아르마니와 공동으로 휴대폰을 디자인하여 베르수스 및 아르마니 핸드폰을 출시하였으며 LG전자는 프라다와 공동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업무 협력을 해오고 있다.
 - 삼성전자와 아르마니의 공동 휴대폰 디자인 작업을 계기로, 상호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삼성-아르마니 전자 제품 라인을 생산할 예정이다.

다. 양국 정상 상호 방문

-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방문해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 기반 확대, IT 및 과학 기술 분야 협력 증진, 해운 물류 분야 협력 등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현지에서는 프로디 총리와 정상회담, 로마에서의 동포 간담회, 중소기업 혁신 클러스터가 있는 카스텔 로마노 테크노파크 방문 등의 주요 활동이 있었다.
- 2007년 4월에는 로마노 프로디 총리가 17~19일 방한했다. 이번 프로디 총리 방한은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양국 수교 이래 양자 차원에서는 최초의 방한이며, 2007년 2월 노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국 정상 회담에서는 통상 투자 확대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07년 4월 18일에는 서울 롯데 호텔에서 이탈리아 로마노 프로디 총리 초청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섬유 패션 산업 관련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과 이탈리아의 디자인 기술이 결합하는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이 논의됐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 보급 로드맵과 이탈리아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태양광 산업 현황도 상호 소개하였다.
- 또한 프로디 총리 방한에 맞추어 이탈리아해외무역공사(ICE)와 한국 수입업협회 간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움베르토 바타니 이탈리아 해외무역공사 사장과 김완희 한국 수입업협회 회장은 18일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 개회식에서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와 한덕수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탈리아 해외무역공사와 한국 수입업 협회간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 또한 같은 날 피에몬테국제무역센터(CEIPIEMONTE) 및 밀라노상공회의소 국제 서비스 센터(PROMOS)와 중소기업진흥공단간 MOU 체결하여 양국 간 교역 확대, 중소기업 협력 기반 확대 등이 마련됐다.

- 2007년도 프로디 총리 방한은 양국 간 경제 교역, 특히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2009년 8월 이탈리아 라퀼라 시에서 개최된 G8 확대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 한-EU FTA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였다. 자동차, 의약품, 기계, 패션제품 등의 수출 확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하였다.
- 2009년 9월에는 이탈리아의 나폴리타노 대통령 및 모라티 밀라노 시장이 방한하였으며 양국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2012년 여수, 2015년 밀라노) 운영과 관련하여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2009년도 양국 정상간의 만남은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경제 교역 확대, 문화 교류, 안보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 D P	EUR 10억	1,389	1,423	1,477	1,563	2,293	2,023
G D P	US\$ 10억	1,727	1,773	1,853	2,138	1,568	1,575
실질GDP 증가율	%	1.0	0.2	1.9	1.8	-0.5	-2.0
1인당 GDP	US\$	30,098	30,525	31,791	31,576	31,359	31,194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2.0	1.9	2.6	2.4	0.9
실업률	%	8.0	7.7	6.8	6.0	6.7	7.8
수출	US\$ 10억	352.2	372.8	416.5	507.8	554.0	434.5
수입	US\$ 10억	341.3	372.7	428.4	501.1	553.6	419.7
무역수지	US\$ 10억	10.9	0.1	-11.9	6.7	0.4	14.8
경상수지	US\$ 10억	-15.7	-27.7	-47.5	-46.2	-67.7	-35.2
외환보유고(금 제외)	US\$ 10억	27.9	25.5	25.7	26.0	n.a	n.a
정부재정수지(GDP대비)	%	-3.5	-4.2	-4.4	-1.9	-2.8	-3.6
누적정부부채(GDP대비)	%	103.9	106.1	106.7	103.9	105.4	107.0
평균환율(1유로=)	US\$	1.24	1.25	1.26	1.369	1.470	1.345

주: 2009년은 전망치

자료: 이탈리아통계청, BANCA D'ITALIA, EIU 종합

나. 주요 경제정책

2008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경제정책은 지난 2001년 임기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신자유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납세부담 완화, 친기업적 정책, 공공부문 지출(건설사업) 확대 등이 주요 공약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전체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침체된 이탈리아 내수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임 후, 파산 위기에 놓인 국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를 위해, 일련의 기업들로 구성된 연합체인 CAI를 통해 회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미국 금융위기 및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관련한 이탈리아 경제 동향

2009년도 이탈리아 경제는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IMF는 2009년 4월 22일 발표를 통해, 금년도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4.4%로 하향 조정하였다. 2010년도 종전의 0.1% 성장에서 -0.4%로 낮추었다. 또한, 실업률도 2008년 6.8%에서 2009년 8.9%, 2010년 10.5%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1/4분기 이탈리아 제조업체 설비 가동률은 62%에 그쳐, 저조한 산업생산을 보이고 있다. 경제 침체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임시 조업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3월 중 실업수당 지급률은 전년동월대비 292%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계, 금속, 화학, 목재 산업 부문에서 임시 조업 중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소비재 산업도 21%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명품 기업들도 고전하고 있으며, 잔프랑코 페레, 말로 등 유명 명품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IT Holding 그룹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던 자동차 산업 구제 방안으로 이탈리아의 정부의 자동차 구입 지원금 제도가 2009년 3월 중 시행되어, 승용차 판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으로 13억 유로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 기금을 지원하였다. 동 기금은 약 600억~700억 유로 규모의 채무 보증에 활용되어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업계에 도움을 주었다.

이탈리아는 동유럽국가의 디폴트 위기를 '97년 아시아 금융대란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특히 동유럽국가 외채의 대부분이 해당 지역 은행을 소유하거나 자금지원하고 있는 서유럽 은행그룹과 연관이 있어 이탈리아 Unicredit 은행과 Intesa San Paolo 은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차원에서 동유럽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불황 타개 패키지’라 불리는 경기부양 법안이 2008년 11월 말 통과되어 2009년 시행되고 있다. 동 법안은 약 5년간 800억 유로 규모 예산으로 추진되며,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 가계 안정을 위한 가족 수당 및 세금 감면, 부동산 담보대출 안정책, 공공 건설, 기업 비즈니스 지원 및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경제 성장률

2008년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은 -0.5%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2.6% 하락했다.

2007년에도 수출호조, 설비투자 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부 의 긴축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의 경제성장은 가능하여 1.6%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6년 이탈리아 경제는 2005년도의 부진을 극복하고 1.9%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탈리아 최대 수출국인 독일 경제의 호황, EU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 고정 투자 증가, 선거로 인한 경기 호조 등이 성장률 상승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2008년도 성장률이 둔화된 이유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의 감소(07년 1.8%→ 08년 0.8%), 고정투자증가율감소(07년3.0%→08년1.9%), 수출증가율감소(07년 2.5%→08년 1.6%)를 들 수 있다. 고정투자감소는 2006년, 2007년 고정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데 대한 반작용이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 감소는 이자율 상승과 유동성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탈리아 경제성장에 중요한 수출이 2006년도 증가율 6.2%를 기록한 후 2007년도에 4.6%로 줄어들었고 2008년도에는 -3.7%를 기록해, 침체 극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경제가 2005년 0.2% 성장의 부진을 2006년, 2007년 1.9%, 1.8%의 성장을 기록하여 다소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3년 만에 -0.5%의 경제성장 하락을 기록, 이는 이탈리아 최근 경제가 과거의 활력을 회복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태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화강세, 중국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의 중저가 제품과의 세계 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과거의 활력을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 강세와 이탈리아 최대 교역상대국인 독일로의 수출 감소는 이탈리아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주력 수출품인 섬유, 의류, 가구 산업 등 주요 소비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경제도 예외는 아니며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탈리아 핵심 산업인 자동차, 섬유 패션, 정밀기계 산업 분야를 비롯 산업 전체에서 경제위기 몸살을 앓고 있으며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이탈리아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의 도산,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산업 성장률 둔화는 200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동향 및 전망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1.0	0.7	2.0	1.6	-1.0	-2.5

자료: EIU, Banca d'Italia, 2009년은 전망치

라. 인플레이션

긴축 재정정책과 유로 강세로 인해 이탈리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4년 2.2%를 기록한 데 이어 2005년 2.0%, 2006년에는 2.1%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는 1.8%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경제불황과 맞물려 3.4%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로화강세와 최근 서비스 시장 자율화 조치로 인한 서비스 가격 인하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및 전망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물가상승률(%)	2.2	2.0	2.1	1.8	3.4	0.8

자료: EIU

마. 경상 수지

2006년 이탈리아의 경상 수지 적자는 GDP의 2.6%로 2005년 1.6%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경상 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는 고유가와 이탈리아 상품의 국제 경쟁력 약화,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를 들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경상수지 538억 달러 적자로 이는 GDP 대비 -2.5%의 적자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역시 이 같은 추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2006년 이후 3년간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평균 2.6%를 유지하였다.

경상 수지 동향 및 전망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상수지(십억 달러)	-15.1	-27.7	-47.3	-53.8	-67.7	-35.2
경상수지(GDP 대비 %)	-0.9	-1.6	-2.6	-2.5	-2.8	-3.6

자료: EIU

2009년은 전망치

바. 환율

유로화는 2002년 중반 이후부터 대 달러 평가 절상되기 시작하여 2005년 초에 미국 단기 이자율 상승과 EU헌법 부결 등으로 인해 소폭 절하되었으나 여전히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도 미국 경상 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이를 메우기 위한 자금 유입이 필요하게 되어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2009년에도 당분간 유로화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달러: 유로 환율 동향 및 전망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환율	1.244	1.246	1.256	1.369	1.470	1.345

자료: EIU

2009년은 전망치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현황

이탈리아의 산업 구조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산업 구조와 유사하여 이탈리아 제조업은 총 부가가치 생산의 약 27%를 차지하는 반면, 서비스업이 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GDP 내 산업별 비중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농림수산업	2.5	2.2	2.1	2.1	2.0
제조업	26.9	26.9	27.3	27.5	27.0
서비스업	70.6	70.9	70.6	70.4	71.0

자료: ISTAT

업종별 고용은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의 66%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전체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업종별 고용 비중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업종별 고용 비중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농림수산업	4.4	4.4	4.2	4.0	3.8
제조업	30.7	30.7	30.8	30.2	29.7
서비스업	64.9	64.9	65.0	65.8	66.5

자료: ISTAT

나. 수출 구조

이탈리아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중저급 기술 기반의 소비재 비중이 높아 가격 탄력성이 높고 수출 가격도 불안정한 편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나 기술 혁신에 기반하기보다는 디자인과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재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이 쉽게 유사 모방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계 시장에서 쉽게 대체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인도의 부상으로 인해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는 글로벌화된 경제 구조에서 (1)규모의 경제 실현의 어려움 (2) 대규모 자금 조달에의 어려움에 따른 R&D 및 설비 투자 여력 부족 등의 큰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섬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이 중국 및 동부 유럽 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2001년 이후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통적으로 이탈리아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명품 소비재에 대한 인기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탈리아 기업들은 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거대한 아시아 시장에서 광고와 마케팅, 판매망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통적인 가족형 소기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주식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본 조달을 추진하는 이탈리아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 또한 지역적으로도 수출이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안정된 추세를 나타내는 독일(12.9%), 프랑스(11.4%) 등 EU 27개국(60.1%)에 집중되어 있다.

이탈리아 주요 EU교역국 현황(2008)

주요 수출국	비중(%)	주요 수입국	비중(%)
독일	12.9	독일	16.9
프랑스	11.4	프랑스	9.0
스페인	7.4	네덜란드	5.5
영국	5.8	벨기에	4.3
벨기에	3.0	스페인	4.2
EU27	60.1	EU 27	57.0

자료: Eurostat, Istat

이탈리아 주요 품목 수출입 현황(2006~2008)

(단위: 백만 유로, %)

연도	수출			수입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농림수산업	4,405	4,992	5,213	9,923	10,409	10,635
석유, 석탄 등 비가공 자원	324	514	552	31,787	33,063	39,949
천연가스	129	552	562	18,663	16,363	22,583
식음료	17,812	19,166	20,613	22,183	23,495	23,851
섬유 의류, 가죽 및 가죽제품	40,682	40,308	40,544	24,673	25,524	24,609
종이, 목재, 종이 및 출판	6,840	7,341	7,062	10,104	10,810	9,738
정유	11,260	13,142	15,202	6,861	6,941	8,365
화학	20,923	22,341	22,024	31,550	33,431	31,761
의약품 및 원료	11,769	11,986	11,927	13,186	14,288	14,524
고무 및 비금속류 제품	21,887	23,279	22,224	10,386	11,305	10,851
금속류 광물	37,554	44,465	44,894	40,601	47,399	44,053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	13,879	12,396	11,147	26,430	25,687	24,242
전기 제품	20,769	21,780	21,643	11,344	12,491	12,556
기계 제품	59,462	68,776	70,553	23,832	27,122	26,520
운송기기	34,550	39,962	39,379	42,867	46,767	42,677
기타 제조 제품	20,064	21,441	20,318	9,337	9,967	9,578
전기 가스	155	113	343	2,178	2,170	2,248
환경, 재생관련 제품	861	1,115	1,112	3,366	3,617	4,017

자료: ISTAT

다. 이탈리아 산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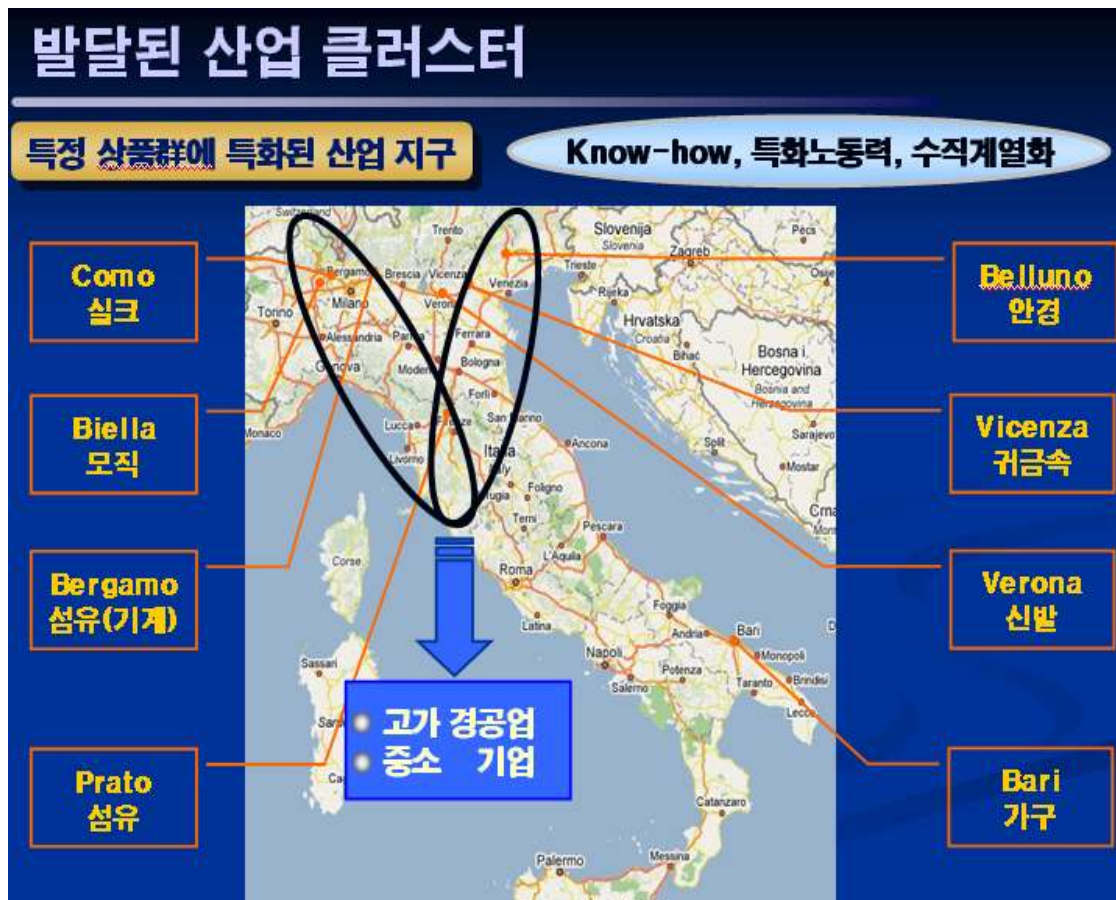
1) 산업 클러스터

2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 중심의 소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일정 지역에 하나의 집합체(Cluster)를 형성하고 있다. Varese 지역의 면직물, Biella 지역의 울, Ascoli Piceno 지역 및 Verona 지역의 신발, Carpi 지역의 니트웨어, Treviso 지역의 여성의류, Como지역의 실크, Biella 지역 및 Bergamo지역의 섬유 기계, Marche 지역의 주방기기 등이다.

이들 클러스터는 기업(생산), 산업협회(법 및 제도 관련 업계 이익 옹호), 지역 중소 은행(지역 산업 자금 조달)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의 근간이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 발전의 모범 사례로 경영학과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클러스터는 양날의 칼로 작용하여 해외 시장 마케팅 능력과 대규모 R&D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용 100명 이하의 기업이 전체 기업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31%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EU 15 지역 중소기업의 약 1/4이 이탈리아에 분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발달된 산업 클러스터



2) R&D 투자 부진 및 혁신 역량 부재

이탈리아의 R&D 투자 지출/GDP 비율은 1.1%로서 주요 경쟁국인 독일(2.5%), 프랑스(2.1%), 영국(2.6%)에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종업원 천 명당 연구원 수도 2.9명으로 스위스 7.1명, 프랑스 5.8명, 독일 5.7명, 네덜란드 5.6명을 크게 밑돈다.

또한 R&D 투자가 섬유, 기계 장비 등 전통적 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IT, BT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제조업 내 첨단 및 지식 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다. 이탈리아의 산업 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이어서 기업들이 대규모의 R&D 투자 능력이 부족하고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2009년도 IMD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제조업 수출 가운데 Hi-tech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69%로, 영국 19.50%, 프랑스 18.86%, 독일 14.22%, 한국 33.47% 보다 낮다.

유럽 주요국 R&D 투자 현황 비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대한민국
총 R&D 투자 /GDP	1.09%	2.51%	2.12%	1.76%	3.22%
기업 R&D 투자/GDP	0.54%	1.75%	1.34%	1.09%	2.49%
총 R&D 투자 (달러)	194억	730억	477억	396억	286억
기업 R&D 투자 (달러)	100억	508억	302억	244억	221억

자료: 2008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08 기준)

라. 주요 산업 동향

1) 재생에너지 산업

□ 태양광 에너지

이탈리아 태양광 에너지 시장은 연간 약 11억 유로 규모이며, 매년 4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최근 3년 동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설치 전력이 2006년 50 MW, 2007년 120 MW, 2008년 301 MW 규모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태양광 에너지의 주요 수요처는 제조산업 40%, 대형유통채널 20%, 서비스업 15%, 농업 19%, 공공행정기관 6% 등이다.

□ 풍력 에너지

2008년은 풍력 에너지 발전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한 해임. 이탈리아의 경우는 2008년 1,000 MW 이상의 풍력 에너지가 설치되어, 총 3,736 MW규모로 세계 6위, 유럽 3위의 풍력 설치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탈리아 풍력발전 기기 시장에는 VESTAS, GAMESA, ENERCON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VESTAS사의 경우 시장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REPOWER사의 풍력발전기기 시장 점유율 성장률이 연간 평균 3배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는 시설 비용 및 배출관련 문제가 풀어야 할 속제로 남아 있지만, 2020년에 이르러서는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원 중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탈리아는 자연친화적 바이오매스인 WOOD PELLET을 열원으로 하는 펠릿 난로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는 나라이며, 관련 시장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펠릿 난로는 가정용 난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700,000대 이상 공급되었다.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 주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가동되어, 1,200 kW전력을 지역 시청에 공급하고 있다.

2) IT 산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시장은 약 68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49억 달러, 자국 생산이 51억 달러, 수출이 32억 달러 전반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최신 IT 제품에 대한 선호와 수용도가 높아 IT 제품의 시장 진출 가능성은 높다. 참고로 2009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이탈리아 휴대폰 가입자 수는 인구 대비 153%이다.

컴퓨터 관련 제품은 노트북, 메인 프레임, 서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휴대폰,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수요도 높다. 우리나라도 무선전화기, LCD 모니터, 디지털 TV,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한 이탈리아 소비자의 선호도 및 인지도가 높음.
- 2008년 한국의 대 이탈리아 무선전화기 수출: 477,429천 달러

PC나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는 미국, 일본, 대만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최근 대만 기업의 선전인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다.

3) 의료기기 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약 46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수입이 약 44억 달러를 차지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다.

주로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한 미국 및 인근 유럽 선진국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크며 주요 최종 구매층은 이탈리아 전체 의료 지출의 약 76%를 차지하는 공공 의료 기관이다. 고급 의료 장비의 경우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제품을 선호하고 범용 장비의 경우는 중국 등 중저가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공공 의료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 의료기기의 경우 사용 연수가 오래된 경우가 많아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행정 처리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교체 빈도도 느린 편이다.

현지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이 느리고 이탈리아 내에 지사나 대리인 없이는 공공 기관 납품이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각 제품에 맞는 형태의 CE 마킹을 획득해야 하며 대금 지급이 늦는 관계로 이탈리아 업체와의 거래 시에는 자금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4) 섬유패션 산업

이탈리아 섬유패션산업은 전체 제조업 수출의 8.6%, 고용 비중 11.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경우 대기업은 마케팅과 판매 등 시장 조성,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생산을 담당하는 분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상당히 수평적 협업 관계로 소재, 기획, 생산, 유통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 및 디자인 관련 제품이 중국 및 여타 개도국의 저가 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워 관련 업체 수 및 근로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제품의 해외 생산, 고품질 유지, 회사 규모 확대 등 생존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향후 이탈리아 섬유 시장은 친환경 바이오 섬유, 인테리어 및 산업용 불연성 섬유, 항균 섬유, 스포츠 고풍수성 방수 원단 등과 같은 산업용 기능성 섬유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5) 자동차 부품 산업

시장 규모는 약 23억 달러로 이 중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8억 달러로 분석되고 있다.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 산업은 전세계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 시장에서 Aftermarket와 Original Equipment의 점유 비중은 35:65이며 수입의 비중은 Aftermarket 부분이 높다. 또한 디젤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최근 SUV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관련 부품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차량 밀도가 유럽에서 가장 높고(차 1대당 1.69명) 이용 연수가 높은 차량이 많아(운영 중인 차량의 1/3이상이 10년 이상 이용) 자동차 부품 시장성이 좋다.

다국적 자동차 부품 기업은 거의 대부분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범용화된 부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 규모가 약 15억 달러인 자동차 튜닝 및 액세서리 부분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IT 기술과 융합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다.

6) 보안기기 산업

3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이 중 수입에 의존하는 부문은 약 1억 2,000만 달러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낮다.

최근 테러 위협과 불법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항구용 보안 장비 및 가정용 안전 장비를 중심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CCTV등 전통적인 보안 장비 시장은 동유럽 등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생체 인식 및 IT 기술 기반 제품과 같이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Access Control(출입 통제) 장비로 RFID 기술과 생체 인식 기술 이용 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용 보안 장비 시장도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탈리아 인구 1,700만 명이 가정용 보안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가구는 20.8%에 이르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탈리아 자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제품 판매 후 A/S를 통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이탈리아 FTA 추진 현황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 집행위가 EU 의 27 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 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 무역협정 내용은 EU 27 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나. EU의 FTA 정책

- EU 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 이었다.
- 그러나 1999 년을 기점으로 하여 EU 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국과의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EU 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 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국과의 FTA 를 추진해왔으나 1999 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 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한다.

다. EU의 FTA의 주요 특징

- EU 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 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 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롤 모델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 한 FTA 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 EU 는 지난 2006 년 10 월 ‘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 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 인도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EU 는 ACP 국가, MERCOSUR, GCC 국가, 그리고 일부 발칸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협상 진행 속도가 부진한 편이다.

EU 주요 무역 협정

EU 회원국 Treaty of Rome	○ 모든 분야 포함
안도라 공국 Exchange of Letters(Customs Union)	○ 1991 년 발효 ○ 공업제품에 한한 관세 동맹
터키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결정 (Customs Union)	○ 1995 년 발효 ○ 공업제품에 한한 관세 동맹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European Economic Agreement	○ 1994 년 발효 ○ 서비스 교역 포함
스위스	○ FTA, 1973 년 발효
Euro-Med국가(*):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시리아, 튀니지	○ Association Agreement
칠레 Association Agreement	○ 2003 년 발효 ○ 협정문에는 서비스, 투자 포함, 현재 상품 분야만 발효
멕시코 EC-Mexico Joint Council 결정	○ 2000 년 발효 ○ 서비스, 투자, 지재권 포함
남아공 Trade, Development&Cooperation Agreement	○ 2000 년 발효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무역 동향

- 이탈리아는 2003년까지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수출입 총괄표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264,617	284,415	299,925	332,014	364,745	365,827
수입	263,012	285,635	309,292	352,465	373,340	377,301
수지	1,604	-1,220	-9,367	-21,355	-8,595	-11,474

자료: Eurostat, Istat

나. 무역 구조

- 주요 수출품으로는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기계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화학 등의 기술집약 제품과 섬유, 가구 등 고급 소비재 등이 있다

2008년 주요 이탈리아 수출품 현황

품목	총 수출액 중 비중(%)
기계	20.8
금속 및 금속제품	12.0
운송기기	11.4
화학제품	9.5
전기 및 정밀 기기	8.7
섬유 및 의류	7.7

자료: EIU, Istat

-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 등 운송기기, 원유 및 원자재, 전자제품, 부품, 기타 일반 소비재 등이 있다.

2008년 주요 이탈리아 수입품 현황

품목	총 수입액 중 비중 (%)
에너지 관련 품목	14.7
금속 및 금속제품	13.4
운송기기	12.8
화학제품	12.8
전기 및 정밀 기기	10.7
기계	7.3

자료: EIU, Istat

- 이탈리아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EU 27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60%를 차지(2008년 기준)하고 있다.
- 주요 수입국으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이 있으며 EU 27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7%를 차지(2008년 기준)한다.

이탈리아 주요 EU교역국 현황(2008)

주요 수출국	비중(%)	주요 수입국	비중(%)
독일	12.9	독일	16.9
프랑스	11.4	프랑스	9.0
스페인	7.4	네덜란드	5.5
영국	5.8	벨기에	4.3
벨기에	3.0	스페인	4.2
EU27	60.1	EU 27	57.0

자료: Eurostat, Istat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이탈리아-한국 교역 현황

- 2008 년 기준 한국의 대 이탈리아 수출은 전년 대비 14.6% 감소한 35 억 4600 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41 억 5100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2009 년도는 2 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5.0% 감소한 3 억 2800 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20.4% 감소한 5 억 4100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한-이 교역 규모는 2003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4 년 교역 규모 50 억 달러, 2005 년 교역 규모 70 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6 년도 72 억 달러, 2007 년 77 억 달러, 2008 년 77 억 달러의 규모를 기록해 2005 년부터 4 년 연속 70 억 달러를 넘어섰다.
- 한편 교역 수지는 2008 년 6 억 500 만 달러를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9 년 8 월 기준 8 억 4200 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한-이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8월
수출	3,408	4,297	4,286	4,151	3,546	1,515
수입	2,500	2,778	2,916	3,583	4,151	2,357
수지	908	1,519	1,373	568	-605	-842

자료: KITA

나. 對 이탈리아 수출

대 이탈리아 수출(2007~2008)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151,400	-3.1	3,545,580	-14.6
1	7411	승용차	879,096	-26.5	516,318	-41.3
2	8121	무선전화기	701,643	-24.5	477,429	-32
3	7461	선박	474,083	81.6	379,280	-20
4	6132	열연강판	57,547	0.5	184,078	219.9
5	2140	합성수지	170,756	20.3	166,422	-2.5
6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129,505	36.6	122,064	-5.7
7	6133	냉연강판	190,982	-16.6	86,123	-54.9
8	6135	전기강판	51,457	32.4	77,764	51.1
9	3203	타이어	68,432	13.2	64,779	-5.3
10	7251	건설중장비	67,403	17.8	61,958	-8.1
11	7420	자동차부품	50,401	21.5	60,447	19.9
12	7131	공기조절기	49,597	1.8	54,928	10.8
13	6134	아연도강판	24,559	70.5	49,607	102
14	3103	필름류	41,063	4.9	46,405	13
15	8230	냉장고	63,914	-5.3	42,879	-32.9
16	6137	도금강판	28,147	674.8	39,650	40.9
17	8313	개별소자반도체	11,484	71.4	39,491	243.9
1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8,606	-13.6	33,700	81.1
19	8124	TV카메라및수상기	27,438	29.2	29,781	8.5
2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4,946	27.8	27,937	12

자료: KITA, 순위는 2008년 기준

- 한국의 대 이탈리아 양대 수출 품목은 승용차 및 무선전화기이며 이외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선박, 열연강판, 합성수지, 금속절삭가공기계 등이 있다.
- 2008 년 기준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승용차로 5 억 1,631 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다음이 무선전화기로 4 억 7,742 만 달러, 3 위가 선박으로 3 억 7,928 만 달러를 기록했다.
- 2008 년 한국의 대 이탈리아 수출 3 대 주력 품목인 승용차·무선전화기·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8.7%를 차지하여 전년의 49.5%에 비해 줄어들었다.

다. 對 이탈리아 수입

대 이탈리아 수입(2007~2008)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582,828	22.9	4,151,375	15.9
1	2262	의약품	208,406	51.1	254,019	21.9
2	4412	직물제의류	182,875	22.4	179,763	-1.7
3	1334	나프타	18,963	-	145,448	667
4	7111	원동기	92,221	22.8	133,987	45.3
5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17,168	57.7	118,104	0.8
6	5132	가죽제가방	99,255	56.5	112,392	13.2
7	7461	선박	4,339	6864.1	111,788	2476.4
8	7901	기타기계류	61,457	27.4	100,152	63
9	7420	자동차부품	116,620	25.1	94,989	-18.5
10	5129	기타신발	78,164	25.5	81,857	4.7
11	7512	밸브	85,302	49.9	77,238	-9.4
12	4411	편직제의류	82,214	5.8	72,955	-11.3
13	6141	철강관	83,027	109.5	72,746	-12.4
14	9411	안경	58,982	10.4	71,096	20.5
15	4490	기타섬유제품	60,256	25.8	66,329	10.1
16	8311	집적회로반도체	45,831	-12.2	61,843	34.9
17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55,889	25.6	59,953	7.3
18	3319	기타가죽	61,318	-2.6	58,345	-4.8
19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48,543	1366.6	57,585	18.6
20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49,730	-16.6	53,993	8.6

자료: KITA, 순위는 2008년 기준

- 한국이 이탈리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의약품, 직물제 의류이며 이 밖에 나프타, 원동기, 정밀화학 원료, 가죽제 가방, 선박, 기계 등도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업군으로 보면, 패션 제품과 기계류, 화학원료, 자동차부품, 선박 등이 대부분으로, 주로 경공업이나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2008 년 수입액 상위 10 대 품목 중 3 개가 패션 제품, 2 개가 기계류, 2 개가 중화학 및 정밀 화학 원료 등이다.
- 2008 년 기준 대 이탈리아 수입은 의약품이 가장 많아 2 억 5402 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직물제 의류 1 억 7976 만 달러, 나프타 1 억 4,544 만 달러를 나타냈다.
- 선박이 1 억 1,178 만 달러로 전년대비 2,476%의 증가세를 나타내, 2007 년에 이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일반

- EU 회원국 간에는 1993 년 EU 통합 이후 무관세로 자유롭게 수입되며, 다만, 의약품, 살아 있는 동식물, 식품에 대해서만 특별 검사를 거치게 된다. EU 역외 국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특별한 차별적 제한 조치는 없으나 철강과 같이 EU 합의에 의해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나 ‘멸종 위기종 거래에 관한 워싱턴 협약(Washingto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유형에 따라 수입 제한 조치가 발동되기도 한다.
-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 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 3 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 의 27 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
- 이탈리아 수입 제한 품목은 금, 방위 산업 관련 물품, 보호 동물 및 식물, 기타 민감 제품 등이며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공산품에 대해서는 공통 반덤핑 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나. 수입 규제 품목

품목명	구분
수입 금지	CuSO4를 포함하고 있는 완구 류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에 금속 칼날이 들어 있는 제품
	환각 및 마약류
	석면 섬유
	수은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온도계
	L-tryptophane 및 L-tryptophane 함유물
수입 규제	인간 사체, 인간 장기, 태아
	폭발물
	무기류 및 무기 부분품
	냉동 보관이나 기타 보존 처리가 필요한 상하기 쉬운 식품 및 음료
	살아있는 동식물
	복권 및 도박 기기
	수집용 화폐 및 우표
	유해 폐기물
	죽은 동물 사체
수입 사전 허가 (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 로부터 수입 허가가 필요함)	우유 및 유제품
	생선
	밀 등 곡류
	채소
	철강
	섬유 및 의류
	무기
	폐기물
	방사선 물질 및 원자로

다. 수입 쿼터

- EU 는 EU 회원국이 유지해 오던 수량 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 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섬유에 대한 수량 제한과 관련, WTO 「섬유 및 의류협정(ATC)」에 따라 EU 는 기존 양자 협정에 따라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 년부터 섬유 무역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라. 기타 수입 규제

1)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 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 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 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액션과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액션과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 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4) 디메틸푸마레이트(Dimethylfumarate, DMF, 실리카 젤) 수입 규제 조치

2008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서 중국산 가죽소파 및 신발 등 구매자로부터 피부질환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프랑스 등 회원국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규제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EU 차원에서 시행하려는 집행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EU집행위는 '디메틸푸마레이트'에 대해 동 물질이 포함된 모든 제품의 EU내 반입 및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품 1kg당 디메틸푸마레이트가 0.1mg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메틸푸마레이트(DMF, Dimethylfumarate, 실리카젤)는 주로 가죽제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작은 봉지(팩)에 넣어 제품 속 또는 포장박스에 함께 넣어지고 있으며, 피부에 화상, 습진, 알레르기 등의 피부질환을 야기하는 걸로 조사되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9년 5.2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5개 품목이다. 스테인레스 냉연강판(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09년 4.17일자로 종결되었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PET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 덤핑 관세), 철강제 관련결구류

* (참고) 반덤핑 관세 기존 심의대상

* 스테인레스스틸 냉연강판 (2009.4.17 종료)

5. 관세제도

가. 개요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관세 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탈리아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U 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 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 관세는 EU 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 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 한편, EU 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 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 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 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 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이탈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 의 원산지 규정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EU 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탈리아 경우에는 20%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 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 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 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 GSP 제도는 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GSP+ 세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 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 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 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 의 GSP 제도는 2009 년부터 2011 년간 3 년 동안 적용되고 있다.

다. 관세 검색 웹사이트

- EU 회원 국가(이탈리아 포함)의 관세율 조회 가능 웹사이트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tarhome_en.htm

라. EU공동 관세율 검색 방법

1)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tarhome_en.htm을 접속한다.

- HS Code 를 통해 검색할 경우 "Taric Code"를 선택하며 해당 품목의 HS Code 6 자리를 미리 아는 경우, HS Code 6 자리를 입력 후 옆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품목명에 해당하는 HS Code 를 검색한 후 확인한다.
- HS Code 6 자리까지는 국제 공용이며, 7-10 자리까지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 8 자리를 모두 입력할 경우 해당 품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 품목명(키워드)을 통해 검색할 경우 "Tariff Description"을 클릭, HS CODE 검색을 한다.

2) Country of origin란 목록 상자 버튼을 눌러 알파벳순으로 나와있는 국가명에서 "South Korea - KR"를 찾아 클릭한다.

3) 하단 "Duty Rates" 버튼을 클릭한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크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품목	규정 지침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유럽 공동체'를 의미하는 'European Communities'의 불어식 표기인 'Communauté Européenne'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며, EC 국가의 통일된 제품 인증 마크이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EC 지역에서 별도의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 가능하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 이사회 관련 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의 필수 요구 사항(Essential Regulations)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제3의 인증 기관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자 스스로 할 수 있다. 즉 CE 마크는 각 대상 품목별 지침(directive)에 정해진 인증 절차(module)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와 지침에서 인증 기관(Notified Bodies)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CE 마크는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지만, 특정 지침에 의해 포장 또는 동봉되는 기술 자료에 인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CE 마크는 규정과 지침의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표시였으나, 소비자들은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공중 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무역상 기술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전자 제품의 경우 CE 마크 획득에 평균 2~3개월, 자동차는 7개월 기간과 1억 7,000 만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을 고려할 때, CE 마크 제도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시장 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EU 지침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규율 적용 대상 상품이 동 CE 마크 부착 없이 유통 중일 경우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상품 유통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또한 EU 지침은 각 회원국이 CE 마크의 사용과 부착에 있어서 지침과 규격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해당 상품의 압수와 함께 적합성 인증서에 서명한 제조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함.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 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일반 제품 안전: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환경 규격: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함.

나. 폐전기 전자제품 지침(WEEE, Directive 2000/96/EC)

EU에서 폐기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 하도록 한 규정이다.

생산자 정의는 ①자사 브랜드로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②OEM등 다른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전기전자 제품을 자사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③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입업자로 일반적인 생산자의 개념인 producer나 maker의 의미보다는 역내 최초 판매자의 개념이 강하다.

적용 대상은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제품(전류나 전기장을 이용해 작동하거나 전류나 전기장을 생성, 전송, 측정하는 장비)로 구체적인 품목은 대형 가정 기기, 소형 가정 기기, IT및 통신 장비, 소비자 장비, 조명 장비, 전기 및 전자 도구 (대규모 고정 산업 도구 제외), 장난감 및 레저 스포츠 장비, 의료 장비(모든 이식 제품은 제외), 검사 및 통제 기기, 자동 판매기 등이다.

회원국 별로 2005년 8월13일 이후부터는 ①분리 회수 시스템 운영(EU 회원국), ②회수 처리 비용 책임(생산자), ③재활용 마크 부착(생산자) ④재활용 정보 제공 (생산자)이 시행되어야 한다.

비용 부담은 2005년 8월13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거 처리 비용은 개별 생산자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2005년 8월13일 이전 출시된 제품 관련 비용은 지불 요인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 점유율 등에 따라 관련 제품 생산자들이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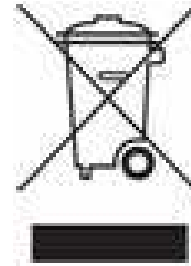
2006년 12월31일까지는 ①회원국 별 거주자 1인당 연간 4kg 이상 회수(EU 회원국) ②품목별로 의무 재활용 목표(생산자)가 달성되어야 한다.

□ 주관 기관, 검사 및 시험 기관

- 법률 시행 기관: 이탈리아 환경부
- 등록 기관: 상공 회의 (Chamber of Commerce)
- 재활용 처리 기관
 - The European Recycling Platform (ERP: www.erp-recycling.org)
 - ecoR'it (www.ecorit.it)
- 근거 법률
 - Legislative Decree No. 151 of 25/07/2005
 - (Italian Official Journal No 175 of 29/07/2005)
- WEEE 마크 제도는 강제 규정이나 회원국 정부의 특정 WEEE 마킹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시판할 수 있는 사전 검사 제도는 아니라 사후 관리를 받는 제도이다.

(1) WEEE 마크 부착

- 제조자는 EU 규정에 따라 2005 년 8 월 13 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자사 제품에 WEE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 마크 부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바퀴 달린 쓰레기통 모양의 WEEE 마크 부착(crossed-out wheeled bin) ②생산자 명 표시 ③ 검은색 막대를 WEEE 마크 아래에 추가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5 년 8 월 13 일 이후 출시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 등이 있음.



(2) 재활용 정보를 제조사 홈페이지, 안내문, 설명서 CD-Rom,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재활용 기관 혹은 정부 당국 등 생산자 등록 기관에 생산자로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이때 회사 정보, 전년도 제품 판매 실적, 재활용 기관 계약서, 재활용 책임 재무 보증 등을 제출해야 함.
- 재무 보증은 생산자가 시장 철수, 부도 등에 의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2005 년 8 월 13 일 이후 판매된 제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 적립, 재활용보험 가입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 이탈리아 등록 기관: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4) 판매 실적 및 재활용 처리 실적을 관리하여 연간 재활용 실적 및 방법을 재활용 기관을 통해 정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는 지방자치 정부가 설립한 수거 시스템을 이용하여 WEEE 를 정해진 수집 지역, 제한 기간 내에 전달하여야 하며 회수하여야 하는 가전제품 WEEE 양이 많을 경우 수거 시스템 동의 하에 기업이 이를 회수하여야 함.
- 본 규정에서 언급한 물질은 규정상의 특정 처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전처리 및 제시된 재활용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함.

(5) 생산자는 회원국별 가입 재활용 제도별로 적정 회수 처리 비용 부담

- 이탈리아의 경우 2005 년 8 월 13 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WEEE(Wast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자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들은 수거지와 처리 시설로부터의 운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으며 WEEE 가 시장에 출시 될 때, 생산자는 적당한 financial guarantee 를 지불해야 함.

○ 미 이행 시 제재 사항

- 무상으로 회수될 수 있는 WEEE 에 대한 개런티를 제공하지 않은 유통업자: 제품당 150 ~400 유로 벌금
- WEEE 의 적절한 수거 시스템, 처리, 회수, 재정 절차를 만들지 않은 생산자: 30,000 ~100,000 유로 벌금
- financial guarantee 를 제공하지 않은 생산자: 제품당 200 유로~1,000 유로 벌금
- WEEE 사용 설명서에 이탈리아 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생산자: 2,000~5,000 유로 벌금
- 신 WEEE 출시 후 1 년 내에 매뉴얼 또는 전자 매체의 형식으로 회수 처리 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생산자: 5,000~30,000 유로 벌금
- WEEE 에 마크 표기 없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생산자: 제품당 200 유로~1,000 유로 벌금
- 생산자 등록 이전에 제품을 출시한 생산자: 30,000 유로~100,000 유로 벌금
- 이탈리아 규정에 따른 WEEE 관리 책임자의 이름 및 국가 등록 기관의 정보를 공개 하지 않은 생산자: 2,000~20,000 유로 벌금

다. 표시 규정(Labeling Requirement)

일반적으로 이탈리아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표시 규정 요구 사항은 없으나, 다음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제조자 국적 및 이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시멘트, 피아노, 하모니카 등의 악기류, 의료기기용 온도계, 각 의약품 식품약품, 화장품, 주류 등

라.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 Marking)

이탈리아로 수입되는 제품은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선적에 수반된 서류에 원산지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제품이나 컨테이너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마.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EU는 환경 보호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하였으며, 기존의 환경 규제(RoHS, WEEE 등)가 제한된 제품 및 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 데 반해, REACH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ACH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기존 화학물질(1톤/년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 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 기간은 2008년 6~11월(6개월), 본 등록은 2008~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기초 정보 사전 등록 기간 ('08.6~11)을 설정하였다.

본 등록은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나, 1,000톤 이상 대량 생산 화학 물질은 2010년까지 우선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유해 물질은 허가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 물질 개발 의무화하는 등, 현재까지의 비관세 장벽 중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ACH 도입에 따른 변화 사항

	기존	REACH 제도	비고
등록 대상	신규 화학물질	EU내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 물질(3만여 종) .완제품 내의 함유된 화학 물질	1톤/년 이상
등록 의무자	정부	EU내 제조·수입업체	국내 기업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 통해 등록
등록 내용	유해성 정보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발암성 등 최대 60여 개)	GLP기관 생산 자료
등록 방법	개별 등록	EU 컨소시엄 통한 공동 등록	

- 기한 내 사전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대 EU 로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 REACH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등록 비용 부담, 원가 상승(5~10%) 등이 예상되며, 이는 수출 업체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REACH 등록 대상 물질(약 1 만 6,000 종)에 대한 국내 GLP 기관의 유해성 정보 생산 능력은 크게 미흡(수요의 약 4% 미만에 불과)한 상태이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기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 기관의 시설·운영 등에 대한 OECD 규정을 준수하여 GLP 로 지정받은 기관
- 현지 수입 업체 및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등록 절차를 분담하고, 이를 위해 현지 유일 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 또는 에이전트 활용이 현재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바. 에코 라벨

-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 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09 년 5 월말 기준 19 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 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 제·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다목적 세제 및 위생 시설 세척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씻기이용 세제, 세탁용 세제, 비누와 샴푸, 식기 세척기,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장고, TV, 진공 청소기, 세탁기, 복사용지, 토양개선제, 신발, 관광사이트서비스, 관광시설 서비스, 형광등

- 기준 제·개정 추진 품목: 히트펌프, 인쇄물, 목재 가구, 티슈, 매트리스, 바닥 깔개, 실내 페인트 및 안료, 섬유 제품 등

사.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Energie Hersteller Modell Niedriger Energieverbrauch A B C D E F G Hoher Energieverbrauch Energieverbrauch kWh/Waschprogramm Washwringung Schleudwirkung Füllmenge (Baumwolle) kg Wasserverbrauch Geräusch Waschen Schleudern	☐ 개요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 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 EU 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 에너지 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	---

▶GEEA

	☐ 개요 ○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

▶Energy 2000

	☐ 개요 ○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 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 기관 ○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	---

-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으로 대상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EU 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 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있는 제 3 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 지적 재산권 등록

- 특허(Patent) 등록의 경우 각 지방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국제 특허 등록은 이탈리아 특허청(Ufficio Italiano Brevetti e Marchi, UIBM)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 한편 외국 기업의 경우 EU 개별 국가를 통해 특허를 등록하는 것보다 EU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을 통해 특허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다.
-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EU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UIBE에도 신청을 하여야 한다. EPO를 통해 특허 신청을 진행할 경우 신청서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1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은 헤이그, 베를린, 뮌헨 EPO 사무소나 이탈리아 특허청에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EPO에 특허 신청을 하고 자국 특허청에도 특허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상표(Trademark)의 경우도 특허와 유사하게 각 지방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경우 이탈리아에 거주 주소(Address)가 있어야 한다. 상표는 EU 상표 디자인 등록사무소인 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Trade Marks and Designs)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국제 상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자국 내 등록 절차도 진행하여야 한다.
- 저작권의 경우 출판된(published) 작품의 경우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내 Copyright service에 등록을 해야 하고 출판되지 않은(unpublished) 작품의 경우 작가 및 출판인 협회(Societa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SIAE)에 등록해야 한다. SIAE는 소프트웨어의 등록도 관할하고 있다.

다. 저작권 종류

1) 특허권: Patents

-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 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받는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 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 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담당하는 개념이다.
- 특허는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의 생산과 상업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로 이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와 제품은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 단 발견, 과학 이론, 수학 공식, 계획, 지적 활동, 놀이, 상업 활동에 관한 규칙이나 원리,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표나 도표 작성법, 동물 종자 등에 대해서는 특허 출권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탈리아 특허권은 사전 심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중복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발명이나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위한 협약에 따라서 보호된다. 산업 발명은 20년간 보장된다. 의약품은 1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디자인 15년, 식물류 15년(포도 및 나무는 30년), 반도체 회로도 10년 등이다.
-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의 경우 신청비는 40유로이며 4년째부터 최초 47유로에서 15년째 741유로까지 매년 특허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5년 이후부터는

매년 741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실용 신안(Utility Model)의 경우 신청 비용이 40유로이며 처음 5년간은 335유로, 다음 5년간은 674유로를 유지비로 지불해야 한다. 디자인이나 모델의 경우 신청 비용이 40유로, 신청년(年)으로부터 5년 이후 5년간은 404유로, 3번째, 4번째, 5번째 5년간은 674유로를 유지비로 지불해야 한다.

-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특허 신청 신청서
 - 특허권을 신청하는 발명 설명서
 - 특허권을 신청하는 발명 도감
 - 위임장(제 3 자 위임 시)
 - 동 건으로 외국에 이미 특허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 서류(이탈리아어 번역본)
 - 의장 등록 신청 비용 완불 영수증
 - 인지(14.62 Euro)
 - 상공회의소 업무 수행비 40 유로(현금)

2) 상표권: Trademarks

-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 업체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를 의미한다. 상표권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단어나 인명, 디자인, 글자, 숫자, 상품 형태나 색채 모두를 포함한다. 상표권 신청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새로움, 타 상표와의 구별되는 독창성, 적법성이다.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나 형태, 상징이나 일반 정서나 공공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보호되며,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간경과 12개월 전부터 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6개월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며, 재연장 신청 기간이 경과 시에는 비용이 더 소요된다.
- Company Marks는 최초 10년 등록에는 101유로가 소요되며, 재연장에는 34 유로가 소요된다. Collective Marks는 최초 등록에 337 유로, 재연장 시 202 유로가 소요된다. 상표등록 관련 정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웹사이트 www.wipo.org/madrid 에 있다.

-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이탈리아어로 작성되고 서명된 신청서
 - 상표권 신청 비용 완불 영수증
 - 동 건으로 외국에 이미 특허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 서류(이탈리아어 번역본)
 - 인지(14.62 Euro)
 - 상공회의소 업무 수행비 40 유로(현금)

3) 저작권: Copyrights

- 2004년 이탈리아 정부는 특별법으로 1941년부터 적용되던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저작권 침해 해석에 대한 변화이다. 이전에는 단지 보호받는 자료의 복제가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대상으로 인식될 대만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였으나 이제 일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복제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즉, 저작권자와 그 유통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살아 있는 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장되며 1992년부터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된다(관련 법령: Legislative Decree 518, Prime Ministerial Decree 244/94).
- 저작권은 그래픽, 음악, 문학 작품, 드라마, 과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적용된다. 출판되지 않은 작품과 소프트웨어의 경우 SIAE에서 등록을 관할하는데 출판되지 않은 작품 등록 비용은 SIAE 회원은 55유로, 비회원은 110유로이며 소프트웨어 등록의 경우에는 107유로가 소요된다.
- 출판된 작품 등록은 문화부 산하 Copy right service에서 관할하며 등록 비용은 14.62 유로이다.
- EU 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 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 년동안 보호 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 년간이다.
- 저작자에 대한 재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 가격에 대한 재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 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 년간 보호된다.

4) 디자인

- EU 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 기간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5 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 년까지이다.

라.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 이탈리아에서 해적판이나 불법 복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 압수는 물론 최대 10,000유로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들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경우 1,032~2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특정 수입품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심각히 우려될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소유권자가 로마에 소재하고 있는 이탈리아 중앙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지방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소유권자나 그 대리인과 함께 수입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침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피해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침해자의 은행 내역, 거래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피해액만큼 지적재산권 침해자의 재산의 압류를 명할 수도 있다.
- 한편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 보호 관련 의무 사항을 이행했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는 운영자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들 사항을 어길 경우 전자는 103~10,000유로 사이의 벌금, 후자는 30,000 ~2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2003년 7월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이탈리아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법정(Intellectual Property Court Division)에서 다루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적재산권 소유자만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가진 자(Licensee)는 할 수 없다.

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노력

- 2000년에 이탈리아는 1996년에 의회에 제출된 반 해적법을 통과시켰으며 그 결과 USTR은 이탈리아를 스페셜 301조의 우선 감시 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조정하였다.
- 2003년 6월에는 미국 특허청과 지적 재산에 관한 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을 하였으며 그 선언에 따라 당사자는 상호 협의 하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부합하는 상표 관련 전자 등록 체계를 개발하도록 하고 새로운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의 활용과 지적 재산의 사법적 측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모조 상품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모조 상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모조상품을 구입한 일반 소비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대법원도 Italy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상표 표시가 소비자들에게 생산지에 대한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이탈리아 상품 보호 방향으로 판결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방 법원에서 상기 상표 표시는 생산지 표시가 아니므로 상품 차압을 철회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한-EU FTA 주요 항목으로 강력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 건에 대한 이탈리아 및 EU측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

- 유럽특허청
 - 주소: Erhardstrasse 27, D-80331 Muenchen Germany
 - 전화: 49-(0)89-23990
 - 팩스: 49-(0)89-2399-4465
 - 홈페이지: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

- 이탈리아 특허 및 상표청(UIBM)
 - 주소: via Molise 19, 00187 Roma
 - 전화: 39-06-47055654
 - E-메일: info@uibm.gov.it
 - 홈페이지: <http://www.uibm.gov.it>
- 이탈리아 산업 디자인 협회 ADI(Associazione per il Design Industriale)
 - 주소: Via Bramante 29 - 20154 Milano
 - 전화: 39-02-33100241
 - 팩스: 39-02-33100878
 - 홈페이지: <http://www.adi-design.org>
 - 비고: 디자이너 및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ADI(이탈리아 산업디자인협회)에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디자인 등록 대행 및 의장법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 등의 보호 업무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절차

- 물품의 반입: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 수입 신고: 관세청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해당 물품의 송품장·과세 자료 등을 갖추어 관할 세관에 신고
- 서류 심사: 세관은 수입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구비 서류의 이상 유무, 기재 사항의 오류 유무를 확인
- 검사·감정: 서류와 관세·특별 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적용상의 실물을 대조, 확인
- 관세 부과·징수: 관세를 확정하여 징수
- 물품 반출: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보세 구역에서 반출

나. 통관 서류

1) 선하증권(Bills of Lading)

-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으로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 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 육상 운송에서의 화물 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背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 증권이다.

2) 송장(Invoice)

- 명세서·계산서·대금 청구서를 겸한 선적 서류로,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과 영사 송장(領事送狀: consular invoice) 및 세관 송장(customs invoice) 등의 공용 송장(official invoice)으로 대별되며 일반적으로 상업 송장을 가리켜 단순히 송장이라 한다.

○ 상업 송장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출하 안내서이며 가격 계산서이므로 상업 송장에는 선적인, 피발행인, 통지처, 선적항, 최종 목적지, 운송 업체명, 예상 출항일, 하인 상품 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다.
- 상업 송장의 작성자는 매도인이 되고 피발행인은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 의뢰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업 송장의 금액은 원천적으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될 수 없고 상업 송장의 상품 명세는 신용장상의 상품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 영사 송장

- 선적 서류의 하나로,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국의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는 서류이다. 송장을 크게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과 공용 송장(official invoice)의 두 종류로 나눌 때 세관 송장(customs invoice)과 함께 공용 송장에 해당된다.
- 수입할 때 관세 등을 포탈하거나 낮게 받기 위해, 또는 외화를 도피시키거나 덤핑을 위하여 부정한 송장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에 유효하고 내용은 일반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상업 송장과 비슷하나 신용장에 'visaed'라고 해서 영사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만일 'legalize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송장은 물론 선하 증권에도 영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문구가 'notarized'라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송장에 영사의 서명은 물론 상공회의소의 인증도 있어야 한다. 주로 몇몇 후진국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점차 폐지되어 가는 추세이다.

3)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포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 포장 내의 수량과 순 중량·총 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패킹 리스트라고도 한다. 선하 증권이나 상업 송장과 같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나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실무적으로 사용된다. 상업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포장 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4) 수입 허가(Import Permit)

- 우유 및 유제품, 치즈, 생선, 밀, 채소, 철강, 가금류, 폐기물, 방사성 물질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요구한다.

5)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45 유로 이상의 섬유(Textile)제품을 수입할 때 요구되나 샘플이나 개인 소유품일 경우는 면제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원산지 표기를 수출 상품의 부대 서류에 표기토록 하고, 포장 외부에는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

다. 물품 검사

-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라. 공항

- 연간 9,100 만 명의 승객과 75 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국제 공항으로는 로마의 Fiumicino 공항과 밀라노의 Malpensa 공항이 있으며 각각 연간 2,500 만, 2,000 만의 승객이 이용한다.
- 밀라노와 로마의 공항을 중심으로 전국에 20 여 개의 국제 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유럽 전역으로의 편리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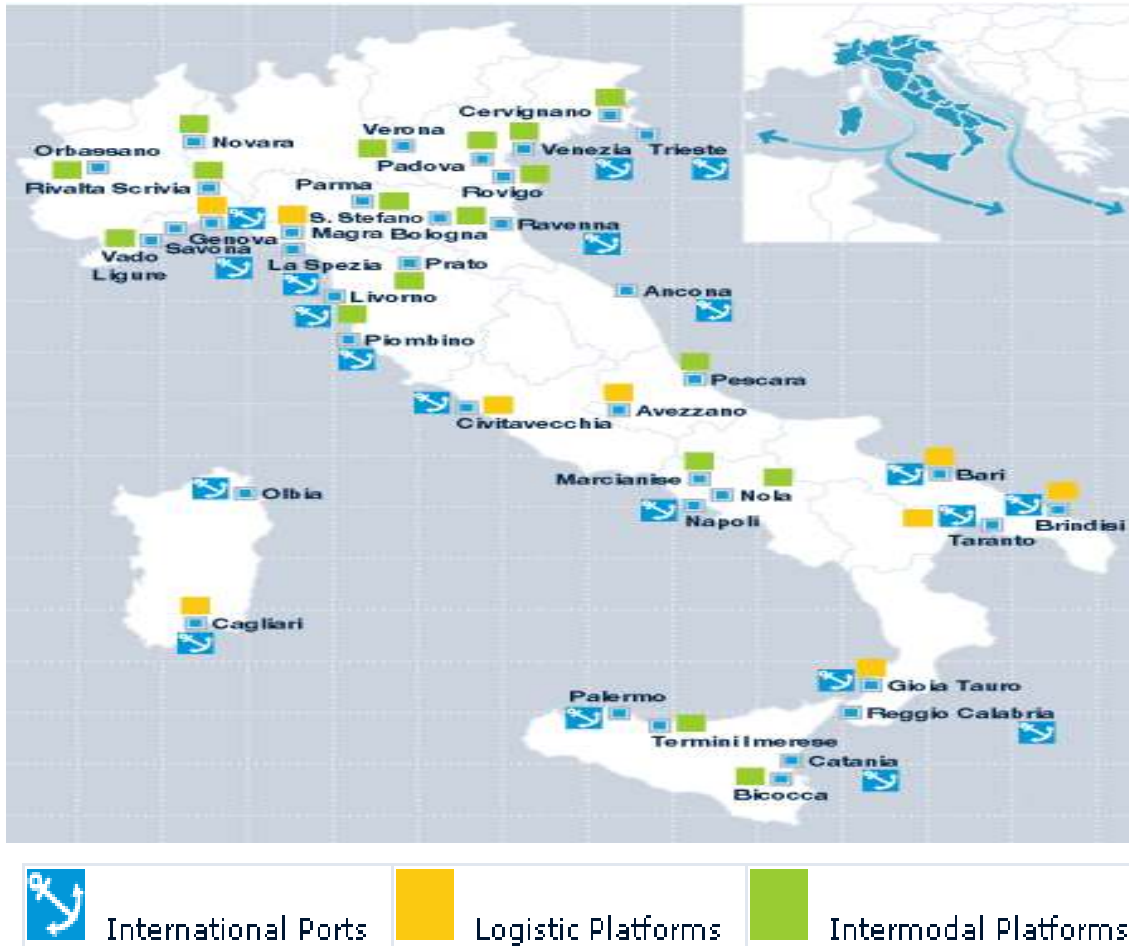
이탈리아 내 주요 공항 분포도이탈리아의 주요 공항 현황

지역	공항명	터미널수	위치	연락처	접근 교통편
로마	Fiumicino	3	로마 남서쪽 26km에 위치	- 전화 (0)6 65951 - Fax: (0)6 6595 5707	Leonardo Express가 로마 중앙역에서 공항까지 운행 (35분 소요)
밀라노	Malpensa	2	밀라노 북서쪽 45km에 위치	- 전화:(0)2 7485 2200 - Fax: (0)2 7485 4010	Malpensa Express 가 공항 에서 밀라노 시내 카도르나역 까지 운행 (45분 소요)
밀라노	Linate	1	밀라노 동쪽 7km에 위치	- 전화:(0)2 7485 2200 - Fax: (0)2 7485 2010	73번 시내버스가 밀라노 시내 산바빌라역까지 운행
나폴리	나폴리	2	나폴리 북동쪽 7km에 위치	- 전화:(0)81 789 6111 - Fax: (0)81 789 6557	택시나 시내버스 이용
베니스	Marco Polo	2	베니스로부터 12km 에 위치	- 전화:(0)4 1260 6111 - Fax: (0)4 1260 6260	택시나 수상교통 이용
볼로냐	G Marconi	2	볼로냐 북동쪽 6km에 위치	- 전화:(0)51 647 9615 - Fax: (0)51 647 9723	Aerobus bus가 볼로냐 중앙역에서 운행(20분 소요)

마. 항구

- 이탈리아에는 7,400km의 해안선을 따라 약 150개의 항구가 있으며 연간 1,500만 명의 승객과 4억 6,3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항구로는 제노바 항구, 나폴리 항구, 베니치아 항구 등이 있다.

이탈리아 내 주요 항구 분포도



제노바항 여객 및 화물 수송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여객	2,727,502	2,642,182	2,638,314	2,702,999	2,715,007
크루즈 여객	287,863	395,797	475,134	520,197	547,905
여객 총계	3,015,365	3,037,979	3,113,448	3,223,196	3,262,912
일반 화물(톤)	57,032,730	56,455,527	56,323,263	58,650,389	55,663,000
컨테이너(TEU)	1,628,594	1,624,964	1,657,113	1,855,026	1,7766,605

자료: Autorità Portuale di Genova (Genoa Port Authority)

나폴리항 여객 및 화물 수송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크루즈(1)	773,223	830,158	971,874	1,151,345	1,237,078
페리(2)	7,209,500	6,384,142	6,500,000	6,600,000	6,010,543
총 여객수(=1+2)	7,982,723	7,214,300	7,471,874	7,751,345	7,247,621
컨테이너(TEU)	347,537	373,706	444,982	460,812	481,521
화물(톤)	19,667,400	20,800,000	20,740,000	21,500,000	20,063,625

자료: Autorità Portuale di Napoli (Naples Port Authority)

바리항 여객 및 화물 수송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크루즈(1)	262,888	277,979	303,338	351,897	465,739
페리(2)	1,076,758	1,176,969	1,272,023	1,428,132	1,380,669
총 여객수(=1+2)	1,339,646	1,454,948	1,575,361	1,575,361	1,846,408
자동차	182,837	210,127	223,247	253,790	249,836
트럭 & 버스	125,272	151,766	190,459	208,698	209,206
컨테이너(TEU)	20,192	10,008	49	64	113
화물(톤)	3,816,126	4,416,145	5,215,711	5,554,796	5,093,218

자료: Autorità Portuale di Bari (Bari Port Authority)

바. 운송 회사 List**1) DHL Express S.r.l.**

- 주소: Viale Milanofiori, Palazzo U3 Strada 5, Rozzano (MI), Italy
- 전화: 02-824 70288
- 홈페이지: <http://www.dhl.com/it>

2) FEDEX

- 주소: Via Albricci, 10 20122 Milano (MI)
- 전화: 800.123.800, Fax: +39-02-2188.7700
- 홈페이지: <http://www.fedex.com/it/>

3) Vector S.p.A.

- 주소: Via Redipuglia7, 21053 Castellanza(VA)
- 전화: +39-0331-446046, Fax: +39-0331-446060
- 홈페이지: <http://www.vectorspa.it>

4) GAVA Group

- 주소: Via Lodi, 23-Los.S. Pedrino 20060 Vignate(MI)
- 전화: +39-02-950-0981, Fax: +39-02-950- 98317
- 홈페이지: <http://www.gavagroup.com/>

5) COTALIA S.R.L

- 주소: Via Giuseppe di Vittorio 8 – 20060 Liscate(MI)
- 전화: +39-02-3664-0701, Fax: +39-02-3664-0700
- 홈페이지: <http://www.cotalia.com>

사. 컨테이너 비용 및 운송 소요 기간

- 이탈리아 Genova 항에서 부산항으로 운송할 경우 20 feet 컨테이너는 200 달러, 40 feet 컨테이너는 300 달러이며 부산항에서 이탈리아 Genova 항으로 운송할 경우 20 feet 컨테이너는 1,300 달러, 40 feet 컨테이너는 2,600 달러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 이 같이 비용이 차이가 나는 까닭은 중국 등 아시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물량에 비해 많고 이탈리아에서 아시아로 오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탈리아로 들어갈 때 보다 이탈리아에서 아시아로 나올 때는 화물선에 여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운송 소요 시일은 약 23 일로 3~4 주 정도 소요된다.

IV. 투자

1. 투자환경

이탈리아의 비우호적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외국인투자(억달러)	1,640	791	438	327	200
GDP 대비 (%)	7.4	3.3	7.0	1.2	1.1

(자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07))

- 이탈리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EU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 투자 환경 최대 취약점으로는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관료주의, 외국인 투자 기업 유인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부재, 비싸고 불완전한 운송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세제, 학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관계 형성 곤란, 일부 지역에서의 여전히 높은 범죄율, 노동 시장의 경직성, 느린 법정 시스템 등도 비우호적인 투자 환경에 포함되었다.
- 이탈리아의 외국인 투자 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7년 4월 Ronald P. Spogli 당시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가 현지 일간지에 공개적으로 이탈리아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한 점을 들 수 있다.
 -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종종 이탈리아에 기꺼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외국 기업에게 벽을 쌓는다. Moreover, Italy often throws up barriers to foreign firms willing to invest in Italy.” (“Corriere della Sera” 2007.4.19)
- 또한 이탈리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 통계를 유럽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이탈리아가 외자 유치의 매력도가 낮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07년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의 33국가 중에서 외국인 기업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국가의 28위에 이탈리아가 해당하였다. (참고: 1위 헝가리, 7위 영국, 18위 독일, 27위 프랑스 그리고 한국은 33위였다.)

- 중소기업 비중이 95%이며 5인 이하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기업 구조로 인해 해외 투자 및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지 않으며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단독 투자보다는 M&A,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를 선호한다.
- 2008년 이탈리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116억 유로(GDP의 0.7%를 차지)를 기록해 전년의 284억 유로에 비해 60.4% 감소했다. 이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기업들의 자금조달력 감소에 따른다.

지역별 대 이탈리아 직접투자 유입 현황 (Net FDI)

(단위: 백만 유로)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럽	13,601.71	13,479.90	12,402.24	14,764.04	28,183.27	27,658.43
아프리카	39.86	14.07	-0.66	45.57	80.83	-5.35
미주	1524.80	78.53	82.23	1010.57	1453.18	737.27
아시아	310.58	188.55	32.84	225.12	463.69	127.52
오세아니아 및 기타	0.56	16.16	0.18	14.19	34.62	40.09
계	15,482.58	14,549.30	13,553.95	16,059.49	30,215.60	28,509.80

주: Net FDI = 신규투자(New Investment)-투자 철수(Disinvestment)'이므로 음수 값도 가능
 자료: Banca d'Italia, ICE, 2009년 3월 기준 입수가 가능 최신 자료

- 미국을 제외한 주요 대 이탈리아 투자국이 유럽 국가이며, 이들 10개국에서 유입된 금액이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의 약 99%에 이른다.

주요 국가별 대 이탈리아 직접 투자 유입 현황 (Net FDI)

(단위: 백만 유로)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벨기에	398.44	107.48	37.56	-897.30	103.70	3,147.27
프랑스	3,012.59	2,485.65	99.40	2,993.64	8,787.99	6,537.44
독일	1,315.27	1,748.85	-711.33	2,007.55	-616.21	-1,043.24
아일랜드	87.02	564.26	-0.03	-804.91	1,028.07	2,565.19
룩셈부르크	2,482.70	1,844.64	1,576.97	3,118.70	721.54	957.22
네덜란드	3,053.10	3,917.98	6,984.42	3,400.91	12,091.56	8,423.95
영국	1,429.83	2,161.38	1,473.60	1,187.89	1,452.40	1,422.96
스페인	65.30	166.14	345.45	2,545.89	3,449.80	3,499.35
헝가리	-1.09	0.96	114.66	0.25	4.48	1,167.27
미국	1,472.42	721.23	692.98	910.31	1,336.94	698.45

주: Net FDI = 신규투자(New Investment)-투자철수(Disinvestment)'이므로 음수값도 가능
 자료: Banca d'Italia, ICE, 2009년 3월 기준 입수가 가능 최신 자료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 통계

- 2008년 이탈리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116억 유로(GDP의 0.7%를 차지)를 기록해 전년의 284억 유로에 비해 60.4% 감소했다. 이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력 감소에 따른다.

지역별 대 이탈리아 직접 투자 유입 현황(Net FDI)

(단위: 백만 유로)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럽	13,601.71	13,479.90	12,402.24	14,764.04	28,183.27	27,658.43
아프리카	39.86	14.07	-0.66	45.57	80.83	-5.35
미주	1524.80	78.53	82.23	1010.57	1453.18	737.27
아시아	310.58	188.55	32.84	225.12	463.69	127.52
오세아니아 및 기타	0.56	16.16	0.18	14.19	34.62	40.09
계	15,482.58	14,549.30	13,553.95	16,059.49	30,215.60	28,509.80

주: Net FDI = 신규 투자(New Investment)-투자 철수(Disinvestment)'이므로 음수 값도 가능

자료: Banca d'Italia, ICE, 2009년 3월 기준 입수가 가능 최신 자료

- 주요 10개국의 대 이탈리아 투자 현황이 전체 투자 금액의 99%에 이를 정도로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하며, 세부 국가별 대 이탈리아 투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국가별 대 이탈리아 직접 투자 유입 현황 (Net FDI)

(단위: 백만 유로)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오스트리아	53.67	89.02	118.30	33.44	124.98	186.26
벨기에	398.44	107.48	37.56	-897.30	103.70	3,147.27
크로아티아	0.49	0.59	3.32	2.02	0.74	4.08
덴마크	4.03	17.15	70.11	260.87	98.57	100.97
러시아	1.01	0.90	1.07	2.47	1.88	71.40
핀란드	-5.41	19.05	17.58	-85.04	17.61	-4.23
프랑스	3,012.59	2,485.65	99.40	2,993.64	8,787.99	6,537.44
독일	1,315.27	1,748.85	-711.33	2,007.55	-616.21	-1,043.24
그리스	0.98	-2.46	4.35	2.22	1.09	2.74
아일랜드	87.02	564.26	-0.03	-804.91	1,028.07	2,565.19
룩셈부르크	2,482.70	1,844.64	1,576.97	3,118.70	721.54	957.22
노르웨이	10.06	98.61	-11.43	0.44	-55.11	30.37
네덜란드	3,053.10	3,917.98	6,984.42	3,400.91	12,091.56	8,423.95
폴란드	6.31	0.25	0.78	0.37	6.91	2.28
포르투갈	27.08	29.29	24.08	1.88	3.99	20.14
영국	1,429.83	2,161.38	1,473.60	1,187.89	1,452.40	1,422.96
루마니아	1.23	1.04	7.20	1.24	1.63	11.45
슬로베니아	2.97	0.46	6.09	10.58	1.04	6.65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스페인	65.30	166.14	345.45	2,545.89	3,449.80	3,499.35
스웨덴	176.84	46.35	54.95	1.78	97.42	192.28
스위스	1,336.93	68.30	1,243.59	485.00	703.12	260.74
터키	0.49	0.88	6.38	-0.77	0.18	1.14
헝가리	-1.09	0.96	114.66	0.25	4.48	1,167.27
알제리	3.38	-0.07	0.19	1.17	26.45	-13.28
이집트	4.49	7.73	0.60	29.40	3.18	3.50
리비아	29.85	0.00	0.00	0.00	4.71	-46.54
모로코	0.00	0.60	-0.10	0.42	0.05	-0.36
남아공	-0.15	1.35	-0.07	-3.91	-2.07	-0.10
튀니지	0.24	1.33	-2.68	1.36	0.37	0.02
앤티레스 제도	2.88	0.36	0.00	0.09	0.00	0.00
아르헨티나	10.13	7.22	54.41	14.41	8.64	6.69
바하마	0.10	0.20	0.00	0.47	0.00	0.00
브라질	4.42	5.17	30.69	56.40	85.43	0.53
캐나다	18.99	16.60	3.76	12.51	16.74	2.02
케이맨 섬	0.00	0.00	0.05	6.49	0.00	0.00
칠레	-0.01	0.15	-0.04	-0.03	0.01	0.03
멕시코	-0.57	0.78	0.57	0.48	0.01	0.45
파나마	-1.04	9.14	0.14	0.46	0.58	0.30
미국	1,472.42	721.23	692.98	910.31	1,336.94	698.45
베네수엘라	2.45	1.42	0.83	0.39	1.27	0.00
영국령 버진군도	-0.37	0.85	0.67	0.30	-0.51	0.00
사우디아라비아	1.67	0.99	0.94	53.43	-0.34	0.04
중국	0.49	5.06	-3.34	8.02	0.15	-9.91
한국	-5.89	8.00	9.76	-5.82	18.97	5.23
UAE	0.48	0.65	3.99	2.04	31.59	1.98
일본	269.55	137.70	224.62	108.76	107.90	-87.09
홍콩	45.84	6.06	42.69	2.57	99.82	22.19
인도	0.39	2.43	-0.12	1.61	1.99	1.05
인도네시아	-0.04	0.07	0.01	1.02	5.48	0.16
이란	-1.25	1.64	24.75	0.78	15.34	0.57
이스라엘	-1.70	15.05	2.09	0.98	2.46	8.29
쿠웨이트	0.00	0.00	0.00	0.00	0.00	0.00
말레이시아	-0.15	0.13	0.59	-0.54	15.76	-13.17
싱가포르	-1.04	3.46	6.46	-3.99	7.23	10.92
대만	0.42	2.06	0.35	1.20	-0.48	1.65
태국	0.01	2.41	0.12	-0.07	39.09	1.06
호주	5.24	11.70	0.14	13.63	32.43	0.36
뉴질랜드	0.00	4.46	0.42	0.60	0.03	4.08

주: Net FDI = 신규 투자(New Investment)-투자 철수(Disinvestment)'이므로 음수 값도 가능

자료: Banca d'Italia, ICE, 2009년 3월 기준 입수가 가능 최신 자료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외국인 직접 투자

- 이탈리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는 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세부업종 별로는 은행업, 통신, 기계 부분에 주로 유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에너지, 섬유 의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산업별 FDI 純 유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수산업	-101	97	189	412	-527	34
에너지산업	460	1,783	3,593	8,096	3,267	3,264
공업	5,225	5,307	1,624	5,632	6,009	4,932
- 광물, 금속	330	420	553	1,059	114	215
- 화학제품	659	955	-2,845	355	134	227
- 기계설비	2,053	181	297	1,058	-38,693	387
- 식료품	532	2,221	292	1,923	1,464	-769
- 직조품	417	316	413	438	645	959
건축 및 공공 부문	179	325	101	165	226	178
서비스업	9,345	5,936	7,681	726	14,829	15,503
- 상업	555	367	29	526	2,842	1,567
- 운송 및 전달	576	-369	416	-3,232	1,614	3,938
- 신용 및 보험	424	2,659	4,628	972	7,013	5,623
계	15,078	13,443	13,215	1,505	23,879	23,971

주: '순유입 = 신규투자(New Investment)-투자철회(Disinvestment)'이므로 음수값도 가능
 자료: Banca d'Italia, ICE, 2009년 3월 기준 입수가 가능 최신 자료

다.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

- 이탈리아에는 현재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진출하여 있으며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아래와 같다.

이탈리아 진출 주요 기업 리스트

국 가	주요 기업
미국	IBM, Ford, General Motors, Hewlett-Packard, Procter & Gamble, Whirlpool, Exxon Mobil 등
독일	Opel, Mercedes-Benz 등
네덜란드	Royal Philips Electronics, Royal Dutch Shell 등
프랑스	Renault, Michelin 등
쿠웨이트	Kuwait Petroleum 등
스웨덴	Electrolux Zanussi, LM Ericsson 등
스위스	Nestlé 등
일본	Suzuki 등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한국의 對 이탈리아 투자

- 한국의 대 이탈리아 투자(신고기준)는 2008년 기준 총 124건, 3억8,631만 달러 규모로 수출 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이탈리아 산업 구조와 이탈리아 내에 영업환경이 언어 등의 문제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 2007년의 대 이탈리아 투자 신고실적은 10건 239만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對 이탈리아 연도별 투자 동향(2004~2008)

(단위: 천 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4	5	3	13,319	4	13,268
2005	11	6	6,066	12	4,205
2006	11	6	7,765	18	8,862
2007	10	5	2,390	13	2,562
2008	6	3	62,424	6	60,303
총계	124	56	410,659	125	386,310

자료: 수출입 은행

- 주요 투자 진출 업종으로는 의류, 무역업, 자동차, 전자 등이며, 진출 형태는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사 설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래 통계에서 보듯 이 전체 투자신고금액의 81% 이상을 도·소매업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 이탈리아 업종별 투자 동향(1968~2008)

(단위: 천 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제조업	44	16	121,675	41	109,881
도·소매업	56	25	284,990	61	274,014
운수업	8	5	1,013	7	1,013
숙박음식점업	1	1	920	3	268
부동산임대업	3	2	314	6	314
기술서비스업	2	2	181	2	179
사업서비스업	10	5	1,566	5	640
총계	124	56	410,659	125	386,310

자료: 수출입 은행

나. 이탈리아의 對 한국 투자

- 이탈리아의 대한투자(신고기준) 경우 2008년까지 기준 총 140건, 1억7천9백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이탈리아 기업 활동이 대부분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2007년 대한투자는 전년대비 2.5 배 이상 늘어난 17건으로 금액은 23,246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 업종별로 기계, 화학, 섬유 및 의류, 운송업 등에 주로 제조업에 진출하였으며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Carrier S.p.A(냉·난방공조기기 및 동 부품 제조), Saes Getters S.p.A(전기 및 전자), Stelvio Chiapponi S.p.A(제조업), Stefanel S.p.A(섬유 및 의류), Merloni Termosanitari S.p.A(금속), ACS Dobfar S.p.A(의약), Ergom Materie Plastiche S.p.A(화학공학), ING. Loro Piana & C.S.P.A.(무역업), SU Samputensili S.p.A(금속), Manuli Rubber Industries S.p.A(화학공학) 등이 있다.

이탈리아의 對 한국 연도별 투자 현황(2004~2008)

(단위: 건, 천 달러)

연 도	이탈리아의 대한 투자	
	건수	금액
2004	6	396
2005	9	13,421
2006	7	7,759
2007	17	23,246
2008	12	15,149
총계	140	179,912

자료: 산업자원부

이탈리아의 對 한국 업종별 투자 동향(1962~2008)

(단위: 천 달러, 건)

구분	신고	
	건	금액
제조업	86	179,912
서비스업	53	20,227
전기가스수도건설	1	220
총계	140	179,912

자료: 산업자원부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이탈리아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방향

- 이탈리아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목표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경제 개발에 있다.
- 국가 경쟁력 향상은 고도 기술 수반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 개발은 남부 지역 등 낙후 지역의 개발과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에 투자 인센티브도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R&D 분야·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낙후 지역의 투자·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

나. 인센티브 관련 법령 및 기관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이므로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EU 지침에 맞추어 제공해야 한다.
- 이에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사후 타당성 평가나 지원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인센티브 수혜 시 관련 절차를 잘 검토해야 한다.

- 인센티브 관련 이탈리아 국내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공장의 신규 설립 및 확장에 관한 법(Law 488/92)
 - 재개발 및 생산 지역 활성화에 관한 법(Law 181/89)
 - 지방 개발(Location Agreement)
 - 여성 기업인 관련 법(Law 215/92)
 - 연구 및 개발 관련 법(Law 140/97)
 - 농업 산업 법(Law 266/97) 등
- 인센티브 관련 자금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중앙신용평가 기관(Medicocredito Centrale, MCC), 이탈리아 개발공사(Sviluppo Italia), 교육대학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nd Reserch) 등에서 주관하고 있다.
-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받는 인센티브가 달라지며 EU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자는 EU 집행위원회에 총 수혜 금액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 2005년 1월 1일 발표된 EU의 기업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영세 기업과 소기업을 합해 SME로 통칭하며 인센티브 지원 기준에 적용된다.
 - 영세 기업(ME: micro-enterprise): 최대 종업원 수 10명, 매출액 및 자산 총액 200만 유로 미만
 - 소기업(SE: small business): 최대 종업원 수 50명, 매출액 및 자산 총액 1,000만 유로 미만
 - 중기업(LE: medium-sized business): 최대 종업원 수 250명, 매출액 및 자산 총액 4,300만 유로 미만
- 그러나 기업 규모에 상기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대기업이 해당 사 주식의 25%를 소유한 경우는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벤처 캐피탈 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기업 지분이 높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 현재는 많은 투자 인센티브가 영세 기업(micro-enterprise)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탈리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04년 까지 인센티브 중 53%가 소기업에, 11%가 중기업에, 3%가 대기업에 배정되었다.

다. 인센티브 종류

□ 조세 인센티브

- Law 338/2000에 근거한 인센티브
 - Law 388/2000의 경우 이탈리아 정부의 ‘신경제’ 촉진 정책에 따라 기업이 정보 기술(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포탈, 보안, 전자 지불 시스템, 직원 훈련)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60%를 세금 환급해 준다.

□ 입지 인센티브

- Law 341/95에 근거한 인센티브
 - 남부 및 저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 설비나 기계류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이며, 제조업 및 광업에 적용되며 수혜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Law 181/98에 근거한 인센티브
 - 이탈리아 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Law 311/204에 근거한 인센티브
 - 이탈리아 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개발 지역 투자에 대한 탄력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혜 정도는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EU 규정상의 지원 한도 확인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교육 훈련 관련 인센티브

- Law 236/93에 근거한 인센티브(교육/훈련)
 -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안전, 품질, 환경보호 관련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지방 정부가 주관한다.
- Law 236/93에 근거한 인센티브(교육/훈련)
 -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안전, 품질, 환경보호 관련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지방 정부가 주관한다.

□ R&D 관련 인센티브

- FAR(Fondo per le Agevolazioni alla Ricerca) 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 시행령 297/99에 근거하여 교육대학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nd Research)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공정 개선 등의 연구 개발 활동에 지원된다. 주로 국가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구 기관 설립 프로젝트 등에 배정된다.
- FIT(Fondo per l'Innovazione Tecnologica) 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 법 46/1982에 근거하여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첨단 기술 분류, 경쟁 전 단계 개발, 산업 연구,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된다. 남부 지역에서는 통합 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지원될 수 있다.
- Law 140/97에 근거한 인센티브
 - 연구 및 경쟁 전 단계 개발 프로젝트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방 정부에 일괄 신청한다.

라. 투자 장려 분야

- 이탈리아 정부는 특히 이탈리아의 경쟁력 보유 산업인 항공 방위, 자동차, BT, 화학, 식음료, 정보 통신, 물류 허브, 의약, 관광 산업을 외국인 투자 유치 중점 분야로 지정, 집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 투자 제한 분야

- 비 EU 회원국의 이탈리아 국내선 운항 사업, 선박 산업, 방위 산업체의 민영화 투자, 기타 전략 산업인 에너지, 광업, 통신 산업, 의약 산업, 관광, 보험,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투자 제약이 있다.
 - EU 역외국 은행의 이탈리아 투자 시 자본금 요건에 차등
 - EU 역외국 항공사의 국내선 취항 제한

- 특히 금융 산업의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금융 기관 지분의 5% 이상 취득하거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할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비금융 회사는 은행 지분의 15% 이상 소유는 불가능하다.
- 이탈리아 정부는 국방, 항공산업 등 일정 분야에 대해,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유나 외국 투자가 소속 국가가 이탈리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투자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 에너지, 국방, 항공 산업의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정부 보유 지분과 함께, 황금주를 보유하여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기업 형태(진출 형태)별 특징

외국인 기업은 Srl, SpA, SApA 등의 세가지 기업 형태 중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역시 가능하나, 상업 활동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투자 실행 전 초기 단계에서 가급적 법률과 세제 관련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 및 회사 설립이 지연될 수 있고, 납세 설계가 잘못될 경우 각종 인센티브 수혜 기회 상실 또는 벌과금 부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일단 법률 및 조세 관련 오류 발생 시 수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설립에 필요한 체크 리스트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탈리아 기업법은 1942년 최초 제정 후 2003년 1월 17일 법령 제 6호(Decree No. 6)로 상당 부분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 법에서는 기업 형태를 크게 Srl, SpA, SApA 등 3가지로 기업 유형을 정하고 있다.

- Srl(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 납입 자본금이 낮고 이탈리아 회사법 상 기업의 자율성 정도가 가장 높아 중소기업에 가장 일반적인 기업 형태
 - 2-3명 혹은 1인 기업도 가능
 - 상업등록소(상공회의소) 및 국세청 등록 의무가 있으며, 등록 완료 전에는 영업 개시할 수 없음. 등록 완료 전 영업 개시의 경우 설립 대행인이 무한 책임을 짐.
 - 납입 자본금은 10,000 유로 이상. 법인 설립 시 자본의 최소 25%는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은행 보증서로도 대체 가능
 - 납입 자본금은 현금은 물론, 재화와 용역, 지적재산권 등 모든 형태로 가능. 이때 가치는 감정을 감정을 요구한 파트너 측이 지정한 공인 감정 기관 또는 감사 기관이 시행
 - 납입 자본금 120,000 유로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총자산액 3,125,000 유로 초과 또는 매출액 6,250,000 유로 초과, 상시 고용 인원 50명 이상의 경우 감사를 두어야 함.
- SpA(합자회사, joint stock companies)
 - 대기업에 일반적인 기업 형태. 은행과 보험 등 금융 기관은 동 형태가 의무적
 - 금융 시장 또는 은행을 통해 기채를 하며, 직접 주식 시장에 상장 가능
 - Srl의 2, 3, 번 항목 설명 동일 적용

- 최소 납입 자본금은 120,000유로 이상. 법인 설립 시 자본의 최소 25%은 은행에 예치해야 함. 단, 1인 SpA는 자본금의 전액 현금 예치
- 납입 자본금의 형태 및 은행 계정 평가 등은 관련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시행
- 주식 발행, 채권 발행, 주주총회 개최, 감사, 임원 선임 등은 정관 및 관련법에 따름.
- SApA(유한 합자회사, 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 SpA와 거의 유사. 특별한 차이 없음.
 - 흔한 유형은 아님.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이 형태는 공식적인 자본금 등록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법인 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본국 모기업을 대표하는 지사 책임자(branch manager) 외의 별도의 공식적인 운영자 및 관리 구조를 갖지 않음.
 - 연락 사무소는 홍보, 정보 수집, 마케팅 활동 등으로 기능이 국한됨. 지사의 역할이 (1) 모기업 상품 및 자산의 예치, 전시, 전달, (2) 모기업을 위한 상품과 자산의 취득, 정보 수집, (3) 모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장점은 초기 진출 시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임. 단점은 지사로 인한 법적, 경제 문제 발생 시 지사는 독립 법인 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본국 모기업이 질 수 있다는 점임. 지사의 부실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나. 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

- 자본금 납입: 법정 예치금 25%를 이자부 예금 계좌(interest-bearing bank account)에 예치
- 공증 기관 입회 하에 회사 정관 확인 및 서명
 - 법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내에 법적 대리인이 필요함.
 - 이탈리아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탈리아어로 번역, 공증인(Notario)의 공증을 받아야 함.
 - 모든 서류 공증이 끝나면 법무사,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 설립에 관한 여타 업무를 대행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 법인 설치 업체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회사 정관: 대표자 성명, 주주 현황, 회사명, 존립 기간, 회사의 목적, 자본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은행 인증서: 한국의 외환 주거래 은행이 발급한 해외 사무소 설치 인증(신청)서 등
 -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 동 이사회 결의서에는 지사의 법적 대표(Legal Representative) 이름, 설립 지사의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또는 본사에서 발급한 지사 대표로서의 주재원 임명장도 가능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본사(모기업)가 보증한 지사 법적 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한 서류
 - 가능한 서류를 모두 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오는 것이 편리함. 이탈리아에서 번역 공증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임

-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번호(Partita IVA) 및 세무번호(Codice Fiscale) 발급
 - 부가가치세 번호는 과세, 계산서 발행 등과 관계되는 일종의 회계 번호로서 사무소 은행 계좌 개설 및 회계 업무에 필수적임.
 - 우체국에 상기 부가가치세 번호 발급 신청 비용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과 소정의 구비 서류(회사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주재원 임명장의 번역, 공증본)를 함께 제출하면 됨.
-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
 - 지사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사 등록국에 신고하고 보통 지사 설립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이 절차를 수행함.
- 사회보장세(INPS), 산업재해보험(INAIL) 등록
 - 지역 INPS(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지소에서 INPS 소정 양식인 DM68을 기재한 후 IVA 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INPS에 등록되는데 이때 기업별로 업종 코드(CSC)와 회사의 납부 (보장) 범위를 나타내는 CA 코드가 부여됨. INPS는 CSC, CA의 두 가지 코드에 의해 최종적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결정하며, 기업이 종업원 채용 시 INPS 등록을 위한 제반 서류들을 기업에 제공해 준다.
 - INAIL(National Institute for work Insurance)는 기업이 실제 영업 활동 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함. 이때 INAIL 신청 양식에는 해당 기업의 업종, 종업원 수, 급여액,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운송 장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INAIL 등록을 마치면 기업에게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는 종업원들의 급여 명세표와 고용 계약서 상에도 명기되어야 함.

다. 지사 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

이탈리아 기업법(Civil Code 2508)에 따라 외국 기업은 이탈리아 영토 내에 상시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공식적인 자본금 등록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본국 모기업을 대표하는 지사 책임자 (branch manager) 외의 별도의 공식적인 운영자 및 관리 구조를 갖지 않는다.

지사는 설립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들을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제출, 등록해야 한다.

- 본국 모기업의 정관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기업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모기업 등록 확인증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모기업의 정관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지사 설립 의결 내용이 기록된 본국 모기업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의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지사 운영의 장점은 초기 진출 시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사로 인한 법적, 경제 문제 발생 시 지사는 독립 법인 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본국 모기업이 지게 되므로 지사의 부실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외국 기업이 지사 설립 시에는 EU지침 89/666에 의한 법령 516/92에 따라 상의 발간 관보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

라.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연락 사무소는 홍보, 정보 수집, 마케팅 활동 등으로 기능이 국한되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연락 사무소의 설립도 여타 진출 형태와 같이 지역 상공회의소에 소정 양식을 제출,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며, 등록에 따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 연락 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공식 기록의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기업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모기업 등록 확인증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연락 사무소 대표 임명장(위임장은 공증 기관의 공증을 거쳐 기업 등록 사무소에 등록)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할 시에는 사무소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보통 설립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이 절차를 수행한다.

마. 공장 설립 절차

생산 품목에 따라 공장 설립 절차 및 인가 기관이 다르므로 해당 산업 관련법을 미리 숙지하여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탈리아의 느린 행정 속도, 복잡한 규제, 각종 관행상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공장 설립의 최종 인가는 SUAP(Sportello Unico per le Attività produttive)의 각 지역 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설립 공장의 종류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나, 모든 공장에 적용되는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장 가동에 필요한)용수 조달 가능 증명서
- 공장 설립 허가서
- 독성 물질 배출 및 가스 유출 관련 국가 보건 당국의 허가증
- 지역 소방 당국 발급 화재 안전 방지 확인서
- 소음 공해 발생 허가증
- 공장 설립자 신분 확인증
- 토지 소유 확인증
- Law 46/1990상의 작업장 내 안전 확인증
- 공장 설립 주변 지역의 1:2000 척도 지도
- 공장 설립지의 1:100 척도 지도
- 공장 건설 부지의 1:100 척도 지도
- 공장 건설 활동 내용, 종업원 수, 인근 건물/도로와의 거리, 공장 부지 표면 상태 기술서
- 장애인 접근 허용 확인서

바. 합작 투자

합작 투자는 각자의 출자 지분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투자 형태로서 특정 기간에 한시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단위 합작 투자’, 개별 기업 간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기업 간 합작 투자’의 형태로 나뉘어지며, 현재는 이탈리아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합작 투자에 따른 별도 법인 설립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유한책임회사(Srl), 합자회사(SpA), 유한합자회사(SApA)의 기업형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사 설립 절차를 따르게 되며, 기존 법인의 주식 취득/지분 참여의 경우에는 지분 관계 변화를 해당 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이를 관보에 공지하게 된다. 세부 서류는 합작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합작 투자에 따른 계약 체결, 지분 관계 등은 투자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작 투자 관계 해소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및 경제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부동산 취득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며 거주자와 동일하게 납세 의무가 부여된다. 부동산 취득 시 8-18%의 등록세가 부과되며 재산세 2-3%(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 공증금 1%, 기타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이 수반된다. 외국인의 건물 매입 후 임대 가능하며 임대 시에는 소득세 지불 의무가 발생한다. 임대료의 25%까지는 건물 관리비로 간주하여 과세 표준가액에서 공제하며 나머지 75%는 수입으로 간주, 소득세를 부과한다. 건물 구입 가격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밀라노 등 북부 지방의 경우 s/m당 500 유로에서 1,000 유로에 해당한다.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영업 지역을 관장하는 지방 상공회의소를 방문 그 지역의 매입 또는 임대 가능한 공업 용지를 물색
- 적정 용지 발견 시 매입 가격의 10% 선불 증서를 첨부한 확인 각서에 서명 후 본 계약서 교환
- 매입 가격의 40%는 건축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할부로 납부 가능
- 나머지 매입 잔금의 50%는 건축 완료 후 대상 부지가 실지 용도로 사용되는 시기에 납부 가능

투자 형태 일람표

구분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영리 활동	가능	가능	불가능
등기	가능	가능	가능
자본금	S.p.A. 12만 유로 S.R.L. 1만 유로	좌동	-
대표이사	1인 이상	좌동	좌동
이사	1인 이상	좌동	-
감사	3~7인	좌동	-
법인세 과세 범위	국내 원천 소득	국내 원천소득	-
회계 처리(조세율)	이탈리아 법인의 회계 처리로 완결	본국소득과 합산처리	-
본국 송금 시 과세 (과실 송금 여부)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 과세	법인세 징세 후 송금은 무과세	-

구분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소송(분쟁 해결)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사기, 파산 및 형사 범죄 제외)	본국 법인에 영향을 미침	-
설립 소요 기간	약 1개월	약 1개월	약 1개월
설립 소요 비용	- 공증 비용: 1,000 유로 내외 - 등록비: 120 유로 - 재무재표 기록비: 90 유로/년 - 부가가치 번호 발급비: 10 유로 - 등록 유지비: 309.87~516.46 유로 - 변호사 비용(설립 업무 대행): 1,000~3,500 유로 내외	좌동	
등록 기관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 - 홈페이지: www.camcom.it [밀라노] - 주소: via Santa Maria 18 - 전화: 02 8515 5342 - 팩스: 02 8515 5335 - E-메일: formaper.pni@mi.camcom.it - 홈페이지: www.mi.camcom.it [로마] - 주소: via de Burro 147 - 전화: 800 800 077 - 팩스: 800 040 270 - E-메일: attisocietari@rm.camcom.it - 홈페이지: www.rm.camcom.it	좌동	

6. 투자입지여건

가. 자유 무역 지대

현재 이탈리아에는 Trieste, Venice 등의 자유 무역 지대가 있는데 외국 원산지 제품이 수출용으로 생산 조립되는 경우 무관세 및 면세로 이탈리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서 권장하는 입주 유망 분야는 기계 조립,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조선 제조업 등이다.

자유 무역 지대의 이점은 물품이 여타 EU 국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자유 무역 지대를 벗어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80일간 관세가 유예된다는 점, 제 3국으로부터 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를 적용 받는다는 점, 어떤 국적의 입주 업체라도 해당국 노동법에 따라 당해 국가의 국민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나. 산업 단지

이탈리아의 경우 산업 단지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통상 16~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레 형성된 전문 생산 지역이다. 동일 분야에 종사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생산 공정상의 한 분야를 분업화하고 전문화하여 상호 경쟁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탈리아 산업 단지는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정부는 클러스터의 모델을 제시하고 클러스터의 형성은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이탈리아 전역에 많은 산업 단지들이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이탈리아 산업 단지 수는 각 기관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60~200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클러스터는 기업(생산), 산업협회(법 및 제도 관련 업계 이익 옹호), 지역 중소 은행(지역 산업 자금 조달)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의 근간이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 발전의 모범 사례로 경영학과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탈리아 산업진흥원(IPI)의 분류에 의한 이탈리아 61개 산업단지에서 일자리 90만개 창출, 제조업 일자리의 8.6%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199개 산업 단지가 이탈리아 제조업 고용 인구의 42.5%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 지원 및 지방 경제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활성화 및 개발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1)Law 317 of 5th October 1991, art. 36, (2)Decree by Minister of Industry of 21st April 1993, (3)Law 598/1994, (4)Law 266 of 7th August 1997, (5)Law 140/199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은 중소기업들이 투자가 어려운 부문인 연구, 실험, 파일로트 프로젝트, 데모, 교육 훈련, 생산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제 감면 등의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구 센터 또는 과학 단지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관련 정보 수집, 신기술 전파,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지방 정부, 지방 정부 출자 기관, 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협회들과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 예로, 이탈리아에서 반도체 산업 단지로 성장한 카타냐시의 경우는 지방 정부가 투자한 카타냐 투자청(Investia Catania)이 주도적으로 투자 업체를 유치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제안 등을 적극 수행하여, 산업단지 형성에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입지 선정 시 고려 사항

입지 예정 지역의 인구, 전력/용수, 교통망, 원자재 수급 여건 등 기본 인프라의 확인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 정부 또는 EU의 낙후 지역 개발 지원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수혜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좋다.

라. 부동산 관련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고고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공사 과정 중 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득 및 개발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외국인은 현지 거주자와 동일하게 납세 의무가 부여된다. 부동산 취득 시 8~18%의 등록세가 부가되며 재산세 2~3%(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 공증금 1%, 기타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 이 수반된다.

외국인의 건물 매입 후 임대 가능하며 임대 시에는 소득세 지불 의무가 발생한다. 임대료의 25%까지는 건물 관리비로 간주하여 과세 표준가액에서 공제하며 나머지 75%는 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건물 구입 가격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밀라노 등 북부 지방의 경우 s/m당 500 유로에서 1,000 유로에 해당한다.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영업 지역을 관장하는 지방 상공회의소를 방문 그 지역의 매입 또는 임대 가능한 공업 용지를 물색
- 적정 용지 발견 시 매입 가격의 10% 선불 증빙서류를 첨부한 확인 각서에 서명 후 본 계약서 교환
- 매입 가격의 40%는 건축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할부로 납부 가능
- 나머지 매입 잔금의 50%는 건축 완료 후 대상 부지가 실지 용도로 사용되는 시기에 납부 가능

건물의 임대는 보통 4~6년 단위의 계약으로 이뤄지며, 계약 종료 6개월~1년 전에 연장 또는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계약의 중도 해지 또한 동일한 기간의 사전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임대 기간 중 매년 공식 물가 인상률의 75%를 적용하여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7. 노무관리

가. 노사 관계

- 이탈리아에는 3대 전국노조가 있다. the General Italian Confederation of Labourt(CGIL), the Italian Confederation of Workers' Union(CISL), the Italian Union of Labor(UIL)이다. 이들은 국제자유무역노조(ICFTU)와 연계되어 있다. 이들 노조는 전국 노동자를 대표하여 정부, 사용자 단체와 당해 년도 임금 상승률, 급여 외 수당, 휴가 등 포괄적인 노사 합의를 주도하며, 그 결과는 전국의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 적용된다.

나. 채용

- 이탈리아의 근로자 채용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며, 근로 개시 전 지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탈리아도 채용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다. 법률 223/91에 의하면 신규 채용의 12%는 장애인 근로자(dis advantaged worker)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법 시행에는 융통성이 있으므로 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 고용 계약은 일반적으로 ‘무한 고용 계약(lavoro indifferente)’이다. 계절 직업, 기존 직원의 출산 휴가, 질병, 병역, 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나 예외적이다. 그러나 고위 관리직(Dirigenti)의 경우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고용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 계약 체결 시 법률 CCNL 14/12 1990를 기초로 하되 각 섹터 별로 최소 임금 등 별도의 고용 관련 법률이 있으므로 세부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거한 정식 계약에 따른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채용 전 연봉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등급, 기타 근로조건 등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 수습 기간

- 정식 근로 시작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수습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가질 수 있는데, 직종과 직위에 따라 최대 허용 수습 기간이 다르다. 직종별 수습 기간 한도는 전국 노조의 노사 합의에 따른다. 근로자가 일단 근무를 개시한 후에는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법적으로 무효), 수습 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유롭게 상호 통지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에게 의한 계약 파기일 경우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중 불만족했던 이유들을 상세히 기술, 전달해야 한다.
- 한편 고용 형태 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는 무한 고용 계약이 원칙이다. 하지만 2003년 이른바 Biagi law(입법자 이름)라 불리는 Decree No. 276/2003에 의해 3가지 새로운 계약형태, 임시직(lavoro intermittente), job-sharing(lavoro ripartito), 부수 노동(additional work, lavoro accessorio - 상시 고용이 필요치 않고 때에 따라 필요한 청소부, 유모, 정원사 등에 해당)가 신규 도입되었다.

라. 근로 시간

-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근로 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법령(Decree 66/2003)에 의해 농업 종사자, 저널리스트, 여행사 직원 등 일부 직종에 한하여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된다.
- 또한 근로자는 24시간 중 11시간, 1주일에 24시간 동안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야간 근무는 24시간 내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초과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체 협약으로 정하며, 단체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간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 임금

-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하여 사회보장제(INPS), 신 고용주세(IRAP)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탈리아에서는 급여가 연 12회가 아닌 14회 지급된다. 6월과 12월에 각각 14회 차 및 13회 차 급여가 지급되어 1년에 14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13회 차 급여는 당해 연도 1~12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된다. 또한 14회 차 급여는 전년도 7월~당해 연도 6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한다.

- 이탈리아 노동법에 의거 고용주는 해고 또는 사직에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 이탈리아의 경우 법적으로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최저 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바. 휴일, 휴가 병가

- 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휴식이 보장되고 법정 공휴일(연간 11일) 및 연간 4주일(근로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전년도 미사용 휴가는 다음 연도에 사용 가능하고 재직 중 미사용 휴가는 퇴직 시에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 병가는 6개월까지(단체 협약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 정규 봉급 및 직위를 유지하면서 신청 가능하다. 급여는 첫 3일 간은 고용주가 급여를 부담하고 이후로는 사회보장청이 부담한다.
- 본인 결혼, 친척 경조사, 자녀 간호 등을 위해 연간 15일의 별도 유급 휴가 가능하다.
- 여성은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3개월간의 100% 유급(80% 회사 부담, 20% INPS 부담) 휴가가 주어지며, 추가 6개월간의 30% 유급 휴가가 보장된다(전액 INPS 부담).
- 동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부담되며, 남성 역시 육아 필요가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 법정 공휴일이 주말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일로 간주하고 월급에 포함된다.

사. 해고

- 현행 이탈리아 노동법에서는 (1) 직무 위반, 기타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당 사유'(Giusta Causa)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2) 납득할 만한 사유(Giustificato Movito)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수일에서 최대 몇 개월까지 근로자 등급, 근속 연수에 따라 사전 통지 후 해고 가능하다. 이때 납득할 만한 사유란 '정당 사유' 구성 정도는 아니나 상급자의 중요한 직무 지시를 어겼다거나(주관적인 평가), 기계, 비품 등 물질적 손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 만약 재판을 통해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판명이 되면 15인 이상 고용 기업의 경우는 복직 조치와 함께 최소 5개월 분의 급여 상당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복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5개월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15인 이하 고용 사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15인 이상 고용 사업체와 동일하나, 노동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도 복직조치의 의무는 없다.
- 이탈리아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해고에는 행정적,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 해고 절차 전에 노무사, 노동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동 관련 소송은 송장과 증거가 최초 변호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면 일반 소송보다 신속히 진행되는데 해고 소송의 경우 재판 종결 시까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판례는 고용주에게 다소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자 권익 보호 중의 판결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아. 노동 시장 유연화 노력

- 이탈리아 정부는 법령 276/2003을 제정,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높은 고용 비용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해 (1)기업 경영이 한시적으로 특별히 호조 또는 저조 시 노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 형태 도입, (2)특정 프로젝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 고용 허용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자. 직군 별 월 평균 급여 현황

(단위: 유로)

직군	2006	2007	2008
관리자	3,000~6,600	2,900~6,400	3,000~7,000
엔지니어	1,950~4,150	1,900~4,050	2,000~4,200
회계사	1,900~4,150	1,850~4,050	1,900~4,150
비서	1,100~2,300	1,050~2,200	1,200~2,500
기능공	1,100~1,700	1,050~1,650	1,200~1,800
일반 사무원	1,100~1,400	1,050~1,350	1,200~1,500
노무자	950~1,400	900~1,300	1,000~1,700

주: 관리자, 비서, 일반 사무원은 외국어 구사 가능자

자료: EIU

8. 조세제도

가. 개요

- 제 1차 및 제 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하여 구미 각국이 세제의 정비를 서둘러 소득세제를 분류 소득 세제에서 종합 소득세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비하여 이탈리아는 재원 수요를 간접세로 충당하면서 소득세제를 개편하지 않아 영. 미 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능률적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몇 번의 세제 개혁을 거쳤으며 특히 1997년 이후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 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조세 개혁의 목적은 특히 1)정부 하위 조직의 재정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2)과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며 3)대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및 납세자가 따라야 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탈리아의 조세부와 주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구분된다. 중앙 정부 부과 조세로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록세, 관세가 있다. 지방정부 부과 조세로는 직접세인 생산활동 지방세, 간접세인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 프로디 전 정권 하에서 근로 소득세, 기업세 등의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베를루스코니 신임 총리 또한 노동자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근로 소득세, 거주용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지방세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할 예정이다.

나. 세부 세제

- IRES(법인 소득세)
 - 법인 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 대해 33%를 과세하며 국내 법인이나 외국 법인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며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외국 투자가가 이탈리아 내에 등록, 설립한 합자 회사, 유한회사는 이탈리아 법인으로 간주한다. 공제 항목이 소득을 초과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간 걸쳐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 개시 3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 없이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 개인소득세(IRE)
 - 이탈리아 거주 개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며 비 거주 개인은 이탈리아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누진 소득세 체계로 제반 소득 공제 후 소득액이 2만 6,000유로 미만이면 23%, 2만 6,000유로 이상 3만 3,500유로 미만이면 33%, 3만 3,500유로 이상 10만 유로 미만이면 39%, 10만 유로 이상이면 43%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IVA)
 - 모든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20%를 과세하며 일부 제품 종류에 따라 4%, 10%등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생산활동 지방세(IRAP)
 - 각 주별로 소재하는 이탈리아 국내 법인의 고정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생산 매출액에 대해 4.25% 과세하는데 주별로 1% 범위 내에서 세율이 다를 수 있다.
- 부동산 보유세(ICI)
 - 각 지자체 별로 부동산 등기 가치에 따라 연간 0.4~0.7% 과세한다.

다. 이중 과세 방지 협약

- 우리나라는 1992년 이탈리아와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었으며, 이는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 중에서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 간의 협정을 말한다.
-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통상 동 협정을 체결하며, 중복과세 및 과실 송금도 동 협정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 소득과세, 국제 운수업 소득의 면세, 배당 소득과세, 이자 소득과세, 로열티 과세 등이다.

- 우리나라는 거주자의 이중 과세 방지 방법으로 모든 조세 조약에서 국내 세법과 마찬가지로 일반 외국 세액 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는 외국 소득 면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자국 거주자의 이중 과세 방지 방법으로 이자, 배당, 사용료와 같은 투자 소득에 대해 세액 공제 방법을 채택하며, 기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면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투자 소득은 원천지국에서 저세율(제한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투자 소득에 대하여 자국에서 일정액만큼 과세함으로써 다른 소득과의 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이탈리아는 외환 규제가 전혀 없으며 완전 자유화 되어 있어 내외국인 모두 이탈리아 국내외에서 외환을 보유할 수 있으며, 또 직/간접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 이탈리아는 금융 기관에게 자금 수지 및 돈세탁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EU 공통 규정인 UIC Instruction 2001/3 (2001.12.21 공표)에 의해 12,500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는 자금 수지표에 포함, 보고해야 한다. 모든 외환 거래 정보는 이탈리아 중앙은행 (Bank of Italy) 산하외환관리청(Ufficio Italiano dei Cambi-UIC)으로 전달되며 통계 처리 후 보관된다.
 - 자본 본국 송금
 - 국경 밖으로의 외환 송금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법에 따라 12,500 유로 이상일 경우 자금 수지표 보고 및 돈세탁 방지 규정에 의해 보고해야 함.
 - 이익 송금
 - 이탈리아 내에서 실현한 기업의 배당금 및 이익은 자유로이 송금 가능. 자금 수지표 및 돈세탁 방지 규정에 의한 보고는 동일함.
 - 로열티 및 수수료 송금
 - 관련 서류 및 세제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 없음. 이때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규정을 적용 받음. 로열티는 2% 미만, 수수료는 2~5% 사이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송금 가능함. 이 이상의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무역 거래에 따른 송금
 - 전혀 제한이 없으며, 제반 규정은 동일함.
- 자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제한 역시 없으나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담보물이나 보증인이 없을 경우 쉽지 않다. 특히 자본 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금융업이 비교적 발달하지 않은 이유로 자금 공급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 위주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은행 역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구조이며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매년 매출과 이익이 신장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 참고로 이탈리아에서 담보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한도의 1.5배 정도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는 것이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이탈리아는 총 수입 규모가 2008년 기준으로 3,772억 유로, 인구가 약 5,88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나. 한국과의 교역 관계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중에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다음으로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경제-대 한국 교역 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인구 (백만명)	GDP (십억 달러)	2007			2008		
			총 수입액	대 한국 수입액	한국 점유율	총 수입액	대 한국 수입액	한국 점유율
독일	82.2	3,316	1,056,059	13,073	1.24	1,204,289	11,576	0.96
영국	60.8	2,769	636,059	5,441	0.86	668,879	6,038	0.90
이탈리아	58.8	2,101	511,976	4,366	0.85	556,190	4,495	0.81
프랑스	61.6	2,556	620,278	3,714	0.60	706,621	3,715	0.53

주: 인구, GDP 데이터는 2007년 기준 2009년 입수가능 최신 통계

자료: IMD, Eurostat

이탈리아는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공업화가 늦은 편이었다. 또한 산업 구조가 한국과 유사하고 경제가 EU 편중 경향을 보여 한국과의 외교, 통상 관계가 독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밀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은 서로 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연안의 반도 국가로서 지중해 시장의 진출 거점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탈리아 시장 구조의 복잡성, 언어 장벽 등은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 무역 구조

이탈리아 2008년 해외교역 규모는 수출이 3조 6,580 유로, 수입이 3조 7,728 규모로 무역수지 적자 약 114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2008년 해외 수출은 전년대비 약 0.3% 증가했으며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수출에서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수출 대상지역은 EU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지역이며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수출도 활발하다.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등이 있다.

반면 2008년 해외 수입은 전년대비 약 1.1% 증가했으며 북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24.8%나 상승하였다. 주요 수입 대상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이며 이중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54%나 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전체에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이탈리아 해외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유로)

	수출		수입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유럽	258,286	69.8	246,253	65.2
아프리카	17,981	4.9	38,271	10.2
아메리카	37,828	10.3	24,346	6.5
아시아	45,670	17.6	66,255	17.5
오세아니아	3,536	1.0	1,545	0.4
합계	365,806	100	377,284	100

자료: ICE 2008-2009 보고서

2008년 이탈리아 수출 대상국 (상위 5개국)

(단위 : 백만 유로)

순위	국가	규모	전년대비 변화율 (%)
1	독일	46,645	-1.3
2	프랑스	40,957	-2.5
3	스페인	23,898	-12.7
4	미국	23,038	-5.0
5	영국	19,234	-9.5

자료: ICE 2008-2009 보고서

2008년 이탈리아 해외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유로)

	수출		수입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유럽	258,286	69.8	246,253	65.2
아프리카	17,981	4.9	38,271	10.2
아메리카	37,828	10.3	24,346	6.5
아시아	45,670	17.6	66,255	17.5
오세아니아	3,536	1.0	1,545	0.4
합계	365,806	100	377,284	100

자료: ICE 2008-2009 보고서

2008년 이탈리아 수출 대상국 (상위 5개국)

(단위 : 백만 유로)

순위	국가	규모	전년대비 변화율 (%)
1	독일	46,645	-1.3
2	프랑스	40,957	-2.5
3	스페인	23,898	-12.7
4	미국	23,038	-5.0
5	영국	19,234	-9.5

자료: ICE 2008-2009 보고서

2008년 이탈리아 수입 대상국 (상위 5개국)

(단위 : 백만 유로)

순위	국가	규모	전년대비 변화율 (%)
1	독일	60,351	-5.3
2	프랑스	32,307	-5.1
3	중국	23,600	8.8
4	네덜란드	20,208	-1.9
5	리비아	17,390	24.4

자료: ICE 2008-2009 보고서

라. 유통 구조 및 시장 진출 방안

전국이 지방 중소 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시장 구조도 다원화 되어있다. 또한 중소 기업이 산업 및 상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상은 많지 않다.

이에 전문 소매상을 통한 판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각 지역별로 상권이 분화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적인 유통 구조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형 판매점이 확대되고 있다.

유통 구조 면에서 전문 소매상을 통한 판매가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전국을 커버하면서 대 고객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력 유통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이탈리아는 유통 구조가 복잡한 반면, 북부 산업지역 각 도시 별로 연중 실시되는 분야별 박람회 (Fiera)를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박람회 참가를 통한 시장 개척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지 관련 전문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소비 시장 특성 파악도 가능하다. 분산되어 있는 시장, 언어 장벽,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직접 시장 진출보다는 현지 시장에 밝은 에이전트나 현지 딜러를 통한 시장 진출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 입찰의 경우 해외 직접 수입은 거의 없고 자국 내 회사를 설립한 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므로 정부 입찰을 추진할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트 활용이 더욱 요긴하다.

마. 소비자 성향

패션, 디자인에 민감하므로 시장 진출 시 제품의 소재, 색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유럽 국가 들에 비해 높아 초기 시장 진입 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제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삼성, LG, 현대, 기아 등 우리 상품이 활발히 진출하여 자동차, 핸드폰, 소비재 전자 제품에 대해 현지 인지도 면에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바. 바이어 특성

E-메일 또는 문서 교환을 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상담이 유리하다. 하지만 영어 구사 및 해독률이 낮아 언어 장벽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성숙한 거래 관계 구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량 오더부터 성실한 수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 산정은 일반적으로 CIF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무역 경험이 많은 기업인 경우 FOB 조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외상 매출 방식을 선호하며 외상 기간은 업체 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송장일 기준 60~120일 이후 대금 지불이 일반적이다. 자본재의 경우 대금 회수까지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LC 개설 비용이 높고 은행 시스템의 비효율로 인해 결제 지연의 불편이 있는 등 금융 서비스 산업이 낙후 되어 있어 자금 운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즉, 매출 확대 가능성과 대금 회수 불능 위험성 간의 실익을 잘 판단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거래 시작 단계에서 독점 계약 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품종 소량 주문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각적이며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마케팅 방식이 요구된다.

□ 이탈리아 바이어의 특징

- T/T: L/C 개설 비용이 높음
- 외상거래: 대금 회수에 60~120일
- 소액오더: 신뢰 구축에 장기간 소요
- 언어장벽: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움
- 문서화: 책임소재, 클레임 대비 (상사중재 활용)
- 기타: 긴 하계 휴가, 다소 낮은 회신, 인터넷 속도 등.

2. 물가정보

(1€ = 1,689 원, 2009년 12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EUR)
식품류	쌀 1kg	1.64
	계란 12개	3.30
	쇠고기 등심 1kg	16.98
	돼지고기 등심 1kg	9.78
	우유 500ml	0.60
	식용유 1L	2.19
	생수 1L	0.21
	맥주(하이네켄 330ml, 4캔)	4.07
	담배 1갑(말보로 라이트)	4.55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3.50
	김치찌개 1인분	13
의료비	의료보험료(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46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50~13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1,000
	무연휘발유 1L	1.23
	자동차 등록비	800

	자동차보험료 의무 (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1,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2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1
	시내버스 기본요금	1
	택시 기본요금	3.5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12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0.85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15
	인터넷 월사용료(ADSL 기준)	2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500~4,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중상급)	12,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중상급)	15,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중상급)	15,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227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62
임금/노무	대졸 초임(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1,200
	생산직 초임(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900
	매니저급 급여(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8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6개월
	연간 국경일수	10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근무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5~20

3. 바이어 발굴

가. 신문 및 잡지 광고

신문 및 잡지는 이탈리아 광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신문은 이탈리아에서 대표적인 광고 채널이다. 이탈리아 신문사들은 직접적으로 광고 관련 부서를 설치하지 못하므로 광고 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 전시회 참가

전시회 참가는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한 장소에서 다수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고 자사 제품의 품질 수준 및 가격 경쟁력을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좋은 제공한다. 특히 동종 경쟁 업체의 상황 및 전반적인 업계 트렌드도 알 수 있으므로 관련 전시회는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61년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발전이 이뤄졌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 단위의 소규모 기업이 산업 구조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현재까지 대형 유통망 대신 소규모 전문 판매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복잡한 유통 구조와 더불어 다양한 상관습이 존재하며, 지역별, 산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복잡한 현지 유통 구조를 감안할 때, 전시회 참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밀라노는 유럽 전시회의 중심지로 특히 연간 전시회 개최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밀라노에서는 연간 만 여 개 전시회를 개최하고, 2만 여 개의 이탈리아 업체가 참가하는데다가 연간 2천만 명이 전시회를 참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600억 유로 전시회 관련 매출액을 올리고 있을 정도이다.

(밀라노 전시장 홈페이지 www.fieramilano.it).

참고: 세계 10대 전시회장

	도시	나라	총 수용 가능성 (Sq metres)
1	하노버 (Hanover)	독일	495,000
2	밀라노 (Fiera Millano)	이탈리아	470,000
3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독일	322,000
4	콜른 (Cologne)	독일	284,000
5	노르드 파리 (Paris-Nord)	파리	270,000
6	뒤셀도르프 (Dusseldorf)	독일	252,000
7	발렌시아 (Valencia)	스페인	231,000
8	바르셀로나 (Barcelona)	스페인	229,000
9	파리 엑스포 (Paris Expo)	파리	227,000
10	시카고 (Chicago)	미국	204,000

다. 시장 개척단 참가

KOTRA와 같은 해외 마케팅 전문 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장 개척단에 참가하여 바이어와의 일대일 미팅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지 업체를 국내에서 직접 발굴할 경우 언어 및 상관습의 차이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지 네트워킹이 있는 기관을 활용하여 바이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바이어 발굴을 하지 못하더라도 바이어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유용한 시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다.

라.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Italian Chambers of Commerce(해외)
- Unioncamere(Association of Italian Chambers of Commerce, 국내, 이탈리아어)

마. 이탈리아 주요 협회 리스트

협회별 회원사 정보를 중심으로, 현지 주요 업체, 경쟁 업체,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1) 화학 및 제약

- **Federchimica**(National Chemical Industry Federation)

2) 의류 섬유 신발

- **SMI**(Italian Association of Textile and Apparel Manufacturers and Related Industries)

3) 문화 레저

- **AFI**(Italian Record Producers Association)
- **AIE**(Italian Publishers Association)

4) 기계 및 장비

- **ACIMAC**(Association of Italian Manufactures of Machinery and Equipment for Ceramics)
- **ACIMAF**(Italian Wire Machi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 **ACIMALL**(Italian Woodworking Machinery and Tool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CIMIT**(Italian Association of Textile Machinery Producers)
- **AFEMO**(Association of Jewelry Machinery Manufactures and Exporters)
- **AIAD**(Italian Industries Association for Aerospace Systems and Defense)
- **AICE**(Italian Cables and Energy Cable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MAFOND**(Italian Association Producers of Foundry Products and Machines)
- **ANCMA**(Italian Cycle, Motorbike and Accessorie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NFIA**(Italian Motor Industry Association)
- **ANIMA**(Federation of the Italian Associations of Mechanical and Engineering Industries)
- **ASSIOT**(Italian Association of Gears and Transmission Elements Manufacturers)
- **ASSOCOMAPLAST**(Italian Plastics and Rubber Processing Machinery and Mould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SSOFLUID**(Italian Association of Manufacturing and Trading Companies in Fluid Power Equipment and Components)
- **ASSOFOND**(Italian Association of Foundries)
- **ASSOMAC**(Italian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f Machines for Footwear, Leather Goods and Tanneries)
- **ASSOMARMOMACCHINE**(Italian Ornamental Stones and Stone Processing Machinery and Equipment Producers Association)
- **COMAMOTER**(Italian Association of Earthmoving Machinery Manufacturers)
- **GIMAV**(Italian Glass-Processing Machinery and Accessories Suppliers' Association)
- **ITALIANMEC.COM**(The Portal of Italian Mechanic: a web site of ANIMA, Federation of the Italian Mechanical and Engineering Industry Associations)
- **OICE**(Association of Engineering, Architectural and Technical-Economic Consulting Organizations)
- **UCIMU**(Association of Italian Manufacturers of Machine Tools, Robots, Automation Systems and Ancillary Products)

- UCISAP(Italian Association of Precision Moulds, Dies and Tooling Manufacturers)
- UNACOMA(National Federation of Italian Manufacturers of Tractors, Agricultural Machinery, Gardening Machinery and Earth Moving Machinery)

5) 가구

- CIAB(Italian Association of Bathroom Furnishing Manufacturers)
- FEDERLEGNO – ARREDO(Italian Federation of Wood, Cork and Furnishing Industry)

6) 사회간접자본

- AISCAT(Italian Association of Motorways and Tunnels Concessionaires)
- ASSINFORM(Italian ICT Companies Association)
- ASSOELETTICA(National Association of Electricity Enterprises)

7) 포장 제지 인쇄

- ACIMGA(Italian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f Machinery for the Graphic, Converting and Paper Industry)
- ASSOCARTA(Italian Paper and Board Industry Association)
- GIFLEX(Italian Association of Printed Flexible Packaging Converters)
- UCIMA(Italian Association of Automatic Packing and Packaging Machinery Manufacturers)

바.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KOTRA 밀라노 KBC 홈페이지 인콰이어리 정보 이용(www.kotra.or.kr/milano)
- ICE 에서 운영하는 Italtrade.com 홈페이지 Business Directory 이용(www.italtrade.com)
- 전자 거래 알선 사이트 활용
 - ETOs(Electronic Trading Opportunities) 사이트에서는 인콰이어리, 상품 카달로그 및 기업 디렉터리 정보를 검색하거나 자사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오퍼 타입(Buy/Sell)별, 품목별 및 업체 명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할 수 있음.
 - 전세계에는 UNCTAD 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계무역연합 사이트(www.wtpfed.org)를 포함하여 현재 약 1,000 여 개의 ETOs 사이트가 있음.
 - World Trade Point Federation(<http://www.wtpfed.org>)
 - Kompass Directory(<http://www.kompass.com>)
 -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Online(<http://world.wtca.org/portal/site/wtcaonline>)
 - Yellow Pages Directory on the Web(<http://www.infobel.com>)
 - EC21(<http://www.ec21.com>)
 - Asian Sources Online(<http://www.asia.globalsources.com>)
 - 이탈리아의 온라인 기업 디렉터리
 - Italiandomains(The Italian Domains Directory, <http://www.italiandomains.net>)
 - ItalyBusiness.net(Suppliers, Buyers, Products, <http://italybusinessnet.com>)
 - Italytrade(Italian Importing and Exporting Companies, <http://www.italytrade.it>)
 - Pagine Gialle on line(Italian Official Yellow Pages, <http://www.paginegialle.it>)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팅에는 정장 차림으로 약속 시간 정시에 도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업가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확립되기 전에는 Mr.---와 같이 정식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 및 종교 관련 화제와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이탈리아 문화, 역사, 요리 등에 관한 화제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첫 상담에는 대화의 주도권을 이탈리아 바이어가 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이 성사되어 제품을 선적할 때에는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제품 판매 후 지속적인 after-service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나. 계약 시 주의 사항

가격 산정은 일반적으로 CIF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무역 경험이 많은 기업인 경우 FOB조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외상 매출 방식을 선호하며 외상 기간은 업체 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송장일 기준 60일-120일 이후 대금 지불이 일반적이다. 자본재의 경우 대금 회수까지 2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수출 대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금 회수 기간 동안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C 개설 비용이 높아 L/C거래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에 매출 확대 가능성과 대금 회수 불능 위험성 간의 실익을 잘 판단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액 전체를 일시불로 지불할 시 2-5% 할인을 원할 수도 있으며 할인 정도는 대금 지불 시기가 빠를수록 커진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이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 좋다.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이므로 꼭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법적인 자문을 거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동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좋다. 상대 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인 경우는,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없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과 계약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추진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계약서 작성 및 서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유통망이 없다. 지역별로 복잡한 유통 구조와 함께 다양한 상관습이 존재한다. 일례로 북부와 남부의 바이어간 거래 형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메일, 팩스 등도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양쪽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들은 잘 보관하여 언제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상품에 대한 클레임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설령 법원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여 오랜 기간 후에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방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가급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거래 조건과 대금 수령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분쟁 시에는 상사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비용을 정확히 문서로 작성해서 청구해야 한다. “대략 얼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정확히 “몇 월 며칠 ○○○건 얼마”식으로 철저히 문서로 정리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다.

이탈리아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관료주의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다. 이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현지 사정에 능통한 컨설턴트를 통한 전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바이어 특성

E-메일 또는 문서 교환을 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상담이 유리하다. 하지만 영어 구사 및 해독률이 낮아 언어 장벽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성숙한 거래 관계 구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량 오더부터 성실한 수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 산정은 일반적으로 CIF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무역 경험이 많은 기업인 경우 FOB 조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외상 매출 방식을 선호하며 외상 기간은 업체 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송장일 기준 60~120일 이후 대금 지불이 일반적이다. 자본재의 경우 대금 회수까지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LC 개설 비용이 높고 은행 시스템의 비효율로 인해 결재 지연의 불편이 있는 등 금융 서비스 산업이 낙후 되어 있어 자금 운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즉, 매출 확대 가능성과 대금 회수 불능 위험성 간의 실익을 잘 판단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거래 시작 단계에서 독점 계약 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품종 소량 주문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각적이며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마케팅 방식이 요구된다.

□ 이탈리아 바이어의 특징

- T/T: L/C 개설 비용이 높음
- 외상거래: 대금 회수에 60~120일
- 소액오더: 신뢰 구축에 장기간 소요

- 언어장벽: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움
- 문서화: 책임소재, 클레임 대비 (상사중재 활용)
- 기타: 긴 하계 휴가, 다소 늦은 회신, 인터넷 속도 등.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인력 관리 시 애로 사항

- 이탈리아인들의 직장관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편적인데 비해, 이탈리아인들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고 개선 의욕이 적다고 할 수 있다.
- 직원에게 포상하거나, 혜택을 줄 때 이러한 것이 영속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를 반드시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고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탈리아 직원들은 이를 자신이 “획득한 권리”고 여기며 향후 지속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해 의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 기업 활동을 위해 인력의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약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가르친 과목은 불어, 독어 등으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낮았으며 최근 10여 년 정도부터나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좋은 방법으로 각종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직급에 맞는 책임자를 선발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직원 및 생산직의 경우 인력 공급회사(용역 회사)를 통해 선발하면 시간, 경비 및 고용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인력을 채용할 때뿐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때도 남부 이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탈리아 중남부 사람들은 좋은 기후와 농업 근간의 마인드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업적인 성향이 부족하다. 하지만 북부지역 사람들은 이익에 관련되는 사항이면 매우 철저하게 따지는 등 오히려 북부 유럽인 성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나. 영업 및 자금 관리 상 애로 사항

- 이탈리아에서 처음 기업 활동을 하는 한국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의 하나는 이탈리아의 영업 환경이 신용에 의한 외상 거래라는 점이다. 매출이 늘어나면 외상 매출금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 결국 은행의 한도를 관리하고 동시에 채권 관리만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외상 매출금 및 운영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며, 적은 자본으로 유통 산업에 진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매출 채권을 부보하는 신용 보험도 있지만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보상금액도 전액이 아닌 70% ~ 80% 수준에 불과하다.

다. 금융 기관 이용 시 애로 사항

- 한국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은행 역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system 이다.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매년 매출과 이익이 신장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야 은행의 한도가 유지되거나 증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담보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확인만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한도의 1.5배 정도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는 것이다.

라. 세금 관련 애로 사항

- 이탈리아는 만성 재정 적자 국가로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20%로서 매우 높은 편이며 외상 거래가 전체인 거래 관습상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 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상 일시적 자금 부족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지연 납부하게 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 이탈리아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가끔 “condono(감면)”라는 한시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세금 누락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고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시행 기간 중 본의든 혹은 실수로 발생한 미신고 세금을 대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이용 시 유의점

- 이탈리아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전문가를 접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유용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품질만큼 많은 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바. 수출 시 추가 증빙 요구

- 이탈리아는 현재 우리나라를 조세 특례를 받고 있는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이탈리아에 수출하실 때에는 조세 특례법상의 조세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탈리아 소득세법(Italian Income Tax Act, D.P.R 22.12.1986, no 917)의 Article 110, paragraph 10 및 11 에 따르면 이탈리아 기업이 비EU 국가이면서 조세 특례 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의 기업과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와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조세 특례국에 위치한 기업에서 수입한 이탈리아 법인은 수입 금액을 비용 항목으로 공제할 수 없게 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 원가와 비용을 손금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기업이 해당 공제 대상 비용이 자신의 실질 경제 목적을 위해 실제로 발생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조세 특례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D.M 23-01-2002로 이탈리아 정부는 조세 특혜 지역을 특혜 범위에 따라 3개로 구분하고 있다.
 - 1항은 포괄적 조세 특혜 지역으로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
 - 2항은 일부 예외를 인정한 포괄적 조세 특혜 지역으로 바레인 등 4개국을 열거
 - 3항은 일부 경우에만 조세 특혜 제도가 있는 지역으로 한국, 앙골라, 도미니카 등 14개 국을 열거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조세 특혜 제한법(TILL, Tax Incentive Limitation Law)에 의한 특혜를 명시
- 조세 특혜국 리스트는 2002년 2월4일부터 실효되었으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 제품 수입 시 조세 특혜 제한법상의 혜택을 한국 기업들이 받지 않았다는 증명이나 외국 기업의 실질적 상업 활동 수행 관련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 ※ 현재 이탈리아 조세 당국은 외국 기업의 실질적 상업 활동의 증명 또는 조세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위한 특정 서식이나 일반적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 수출기업 애로 사항 및 대응 상황
 - 주재국 과세 당국의 제도 운영상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대사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확인 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필요 시 대한 상공 회의소가 공공 기관이라는 대사관의 확인서도 발급하고 있다.

사.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

- 이탈리아 외무부는 연간 비자 발급 수를 일정 수준에 맞춰 관리를 하고 있어 비자 발급에 수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업체 및 일반 지상사 파견 인력이 무비자로 입국한 뒤, 주재 비자를 받기 위해 본국을 다시 오가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사례가 접수되었다.
- 투자 진출을 위해 입국을 희망하는 업체가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현지 투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아울러, 비자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장기 체류 시 발급받아야 하는 체류 허가증의 발급 또한 최종 발급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기에 이를 감안한 진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 부동산 관련 제한

- 60 페이지 투자입지 여건 참조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무역 부분 성공 사례: 인지 컨트롤스

1) 기업 개요

- 회사명: (주) 인지 컨트롤스(INZI controls, Inc.)
- 설립 연도: 1978
- 주요 제품: 냉각 시스템 부품, Engine management system, 센서/스위치류 등
- 연락처: (T) 031-496-1700, (F) 031-499-8760

2) 현지 진출 개요

- (주) 인지 컨트롤스는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회사로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와의 의사 소통 문제, 그리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샘플 테스트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컨대 제품의 특성상 샘플 테스트가 이뤄져야지만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하나, 비협조적인 현지 바이어의 업무 처리에 영업 전략의 구사 자체가 힘들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사는 꾸준한 관련 전시회 참관 및 세일즈 출장을 통해 주요 부품 공급 업체와의 면담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간과하기 쉬운 현지 비즈니스 관행들에 대해 신경 썼다. 해외 업체들이 꺼리는 자사 프로젝트 디자인의 외부 유출, 바이어사 샘플의 유출 등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꾸준한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끊임없는 홍보를 통해 샘플 테스트 일정을 바이어 생산 공장에서 갖는데 합의하였다.
- 샘플 테스트를 위해 수많은 출장을 계획하여 결국 성공적으로 마친 동사는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수출액을 늘리고 수출 제품군의 확대에도 성공하였다.
- 이탈리아 시장 진출에 있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지방 단위로 분산된 유통 구조와 바이어들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한 비즈니스 신뢰 관계 구축이다. 인지 동사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장기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동사는 현재 이탈리아에 연간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다
- 동 제품 관련 이탈리아 바이어 및 유통업체들은 동사의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향후 동사의 신제품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나. 투자 부분 성공 사례: 종근당

1) 기업 개요

- 회사명: (주) 종근당
-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8 종근당 빌딩
- 대표자 성명: 김정우, 이장한
- 연락처: (T) +82-2-2194-0300 (F) +82-2-2194-0335
- 현지 법인명: BARDIAFARMA S.p.A.

- 현지 주소: Frazione Domodossolina, I-26851 Borgo S. Giovanni (LO), Italy
- 현지 연락처: (T) +39-0371-210785 (F) +39-0371-935429

2) 현지 진출 개요

- 종근당은 2002년 이탈리아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Bardia Farma S.P.A 지분 100%를 매입하여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하였다. 원료 항생제 특히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문 생산 업체로서 최신 설비를 통해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 유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 이탈리아 현지인 50명을 고용하여 전 세계 약30여 국의 완제 제약 회사에 원료 항생제를 판매하고 있으며 본사를 포함 한국 기업에도 원료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본래의 투자 목적을 이루고 있다.
- 진출한 이래 약50%의 성장을 보였으며, 본사의 對 유럽 진출 교두보로서 관련 산업의 정보 수집 그리고 본사의 유럽 진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사업상의 애로 사항으로는 특허 만료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신제품 개발이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점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들고 있다.
- 현재는 인도, 중국 등 후발 업체들의 약진으로 어려운 입장이나 몸집이 적은 기업으로서의 순발력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선진국 시장 및 niche market을 공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현지 체류를 위한 기본 서류 준비

1) 체류 비자 발급

- 이탈리아에서 지사를 설립하거나 학업을 위해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경우 체류 목적의 장기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 이탈리아는 입국 후 3개월간은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하나, 이의 연장은 불가하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셴겐 국가에서 3개월 체류 후에만 가능하다.
- 지사 설립 등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서울에 소재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적합한 목적의 장기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비자 발급은 외국 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에서만 발급이 되므로 무 비자로 이탈리아에 입국했을 경우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야 한다.

2) 체류 허가증 신청

- 체류 허가증(일명 쏘조르노, Permesso di Soggiorno)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지사 설치나 학교 입학 등 전 과정에 걸쳐 번번히 요구되는 서류이다.

- 이탈리아의 경우 한국에서 보통 1년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여 동 비자를 바탕으로 체류허가증을 현지에서 신청, 발급 받게 된다.
- 최초 발급 이후 일정 기간(보통 1년이나 2년)이 경과하면 체류 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최근 이탈리아에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탈리아 정부의 철저한 관리 등으로 체류 허가증의 신청, 발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도 수개월씩 걸리기도 한다.
- 최초 서류접수는 우체국에서 이뤄지며, 관할 경찰서에서 지문 날인 및 사진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통상적인 유효 기간은 1~2년으로 제한된다.

3) 세무 번호 발급

- 이탈리아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체류 허가증 신청과 더불어 세무 번호(codice fiscale)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는 은행 구좌 개설, 자영업 사업 개시 시, 피고용자로의 취직 시, 의료보험 등록 시 등에 필요하며 일종의 신분번호로 쓰이기도 한다.
-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과 체류 허가증이며 비자가 있는 여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제부 소속 세무서 Agenzia dell' Entrata 에서 할 수 있다. 신청하면 신청한 날 즉시 발급 받게 된다. (참고: <http://www.agenziaentrate.gov.it>)

나. 집 구하기

- 집을 구하는 방법은 우선 복덕방에 구하고자 하는 집의 조건과 지불 가능한 월 임대료 수준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복덕방을 통해 집을 구할 경우 통상 연 임대료의 15%를 복덕방비로 지불해야 한다.
- 집은 FUNISHED 된 경우와 UNFUNISHED된 경우가 있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계약 시 통상 2~3개월 치 임대료와 대략 3달치 정도의 보증금을 선불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추후 집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 사용에 따른 하자 발생 여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 기한 전에 집을 비우고자 할 때는 3~6개월 전에 주인에게 고지하여야 손해가 없다.
- 임대 계약은 통상 4년이며 주인에게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필히 계약 전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복덕방을 통하지 않는 경우 "SECON DAMANO" 등의 관련 주간지 등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에 직접 연락하여 구할 수 있다. 그 외 복덕방비를 받지 않고 집을 소개해주는 전문업체가 있으나 실제로는 소개비로 약 150유로를 받으며 제공되는 집의 정보가 선별된 것이 아니고 SECON DAMANO에 실렸던 정보를 무작위로 모아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 임대차 계약 후 등기를 하게 되며, 등기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할 부담한다. 아울러 표준 계약에 따르면 매년 물가 인상률에 의거하여 임대료의 조정이 있으며, 이 경우 새로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거주 신고

- 집을 구하고 나면 주소지의 COMUNE(시청)에 가서 거주 신고(RESIDENZA)를 해야 한다.
- 거주 허가증(일명 '레지덴짜'라고 함. Certificato di Residenza)은 이탈리아에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아파트 또는 사무실 계약, 전기, 전화 가스 신청, 이삿짐 통관 등에 필요하다. 거주구역의 시청(comune)에 신청, 발급 받게 된다.
- 체류 허가증(쏘조르노) 사본, 여권 사본, 주택 임대 계약서(구청에 따라 요구하는 곳이 있음) 등이 필요하다.
- 각종 계약(수도, 전기, 가스, 자동차 보험 등)을 위해서는 거주 신고가 필수이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Carta d'Identita(거주 등록증)이 발급된다.

라. 인터넷 및 전화 신청

- 최근에는 인터넷과 일반 유선 전화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을 신청 할 때 유선전화 사용을 같이 신청한다. 비용은 인터넷 및 시내 유선전화 무한대 사용 서비스가 1개월에 약 50 유로 선이다.

마. 운전면허 교환

- 한국면허증을 이탈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므로 현지에 와서 교환하면 된다. 한국 면허증을 이탈리아 면허증으로 바꾸는 경우를 Conversione Patente Estera라고 하며, 운전학원(Auto scuola)을 통하거나 이탈리아 경찰청(Motorizzazione)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운전면허 교환은 1대 1 교환으로 이뤄지며, 최종 귀국 시에 이탈리아 면허증을 반납한 뒤, 국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자동차 구입

- 자동차 구입에는 체류 허가증, 세무 번호, 거주자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동차 구입은 주거지가 확정된 이후에 하게 된다. 거주자 등록증은 발급에 통상 수개월(밀라노 지역의 경우 6개월~1년) 소요되기 때문에 거주자 등록증 발급 전 차량 구입 시에는 거주자 등록증 발급 신청서로 대체되기도 하나,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거주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동차 구입시 계약 액으로 지급된 금액은 해약 시 전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은 계약 시 최대한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

- 신차 구입은 각 지역소재 자동차 대리점(주로 시외곽에 위치)을,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대리점이나 중고차 거래 전문 사이트(www.secondamano.it 등)에서 검색,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중고차 구입은 사기가 많아 많은 유의가 필요하다.

사. 자녀 교육

- 이탈리아의 학제는 초등학교(5년) - 중학교(3년) - 고등학교(5년) - 대학교(3년)이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학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 선택할 수 있다.
- 이탈리아 거주 외국인 자녀의 상당수는 영, 미 계열의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는데 밀라노 지역 국제학교는 다음과 같다.

① AMERICAN SCHOOL OF MILAN

- 주소: 20090 Noverasco di Opera, Milano, Italy
- 전화: +39- 02- 5300001, 팩스: +39- 02- 57606274
- E-메일: admissions@asmilan.org
- 홈페이지: www.asmilan.org
- 학비:
 - 초등학교
 - 입학금: 3,000유로
 - 기부금: 15,000유로
 - 수업료: 13,300유로
 - 학교운영비: 2,000유로
 - 중학교
 - 입학금: 3,000유로
 - 기부금: 18,000유로
 - 수업료: 14,650유로
 - 학교운영비: 2,000유로 등
 - 고등학교
 - 입학금: 3,000유로
 - 기부금: 20,000유로
 - 수업료: 16,480유로
 - 학교운영비: 2,000유로 등)
- 홈페이지: www.asmilan.org

② BRITISH SCHOOL OF MILAN

- 주소: Via Pisani Dossi 16, Milano, Italy
- 전화: +39- 02- 26413310 , 팩스: +39- 02- 26413515

아. 은행 구좌 개설 및 현금/신용카드 신청

- 은행 구좌 개설 신청은 체류 허가증과 세무 번호 발급 후 은행을 방문하여 소정 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즉시 개설된다. 이때 현금 직불카드(BANCOMAT)도 같이 신청한다. 신용카드는 신청 후 약 1개월이 소요된다.

- 은행 구좌 개설 시 한국은 개인이 비밀 번호를 정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은행에서 비밀 번호를 발급해주므로 비밀 번호를 분실치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 병원

- 이탈리아의 모든 거주자는 이탈리아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의료보험과 연금이 합해져 공제가 되나 무소득 근로자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소 등록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를 직접 방문, 간단한 소정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공 의료보험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외국인들 또는 부유층의 경우 사설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일반

- 이탈리아는 지중해성 기후로 전국적으로 온화한 편이나 북부 지역 일부는 대륙성 기후이다.
- 한국과 같이 4 계절이 뚜렷하여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나 북태평양과 시베리아 대륙이 있어 여름에 습하고 겨울에 매우 추운 한국과는 달리 여름에 기온이 높더라도 그늘로 들어 가면 한결 시원해지고 겨울에도 한국과 같이 춥지는 않다.
- 따라서 출장 시에는 한국에서 입는 것과 같은 계절에 맞는 복장을 준비하면 되나 햇빛이 강한 편이므로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강수량

- 중·남부에서는 겨울철 강수량이 여름철의 5~6 배에서 10 배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해마다 강수량 변동은 크지만, 대체로 평지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0 mm 이하이며 북부 지방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3) 기온

- 여름의 평균 기온은 29℃, 겨울의 평균 기온은 9℃ 정도로 온난하다.

밀라노 지역 연간 기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온	최고	4.5℃	7.9℃	12.9℃	17.6℃	22.2℃	26.1℃	28.6℃	27.5℃	24℃	17.6℃	10.4℃	5.3℃
	최저	-1.7℃	-0.1℃	3.3℃	6.9℃	11.2℃	15.1℃	17.2℃	16.5℃	13.3℃	8.2℃	3.8℃	-0.4℃
강수량		61mm	58mm	71mm	85mm	98mm	81mm	68mm	80mm	82mm	115mm	105mm	74mm

4) 이탈리아 날씨 검색 홈페이지

- <http://www.meteo.it/Public/Meteo-Italia/home.aspx>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 시차는 우리 나라보다 8 시간 늦다.
- 단, 서머타임 적용기간(3 월 마지막 일요일에서 10 월 마지막 토요일까지)는 우리 나라보다 7 시간 늦다.

2) 근무 시간

- 근무 시간은 기관과 업체별로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오전 8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오후 3~5 시까지 근무하며 은행은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1 시 30 분까지, 오후 3~4 시까지 근무한다. 일반 상점이나 소형 슈퍼마켓의 경우 오전 8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오후 3~7 시까지 문을 연다. 대형 슈퍼마켓은 점심시간 없이 오후 8 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은 대부분 문을 닫거나 오전에만 영업한다.
- 한편 7 월 중순부터 8 월 하순까지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휴가를 실시하므로 업체 방문 출장은 지양해야 한다. 12 월 중순부터 이듬해 1 월 중순까지도 휴무일이 많으므로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패션 관련 전시회와 행사가 집중되는 2 월 중순부터 3 월 하순, 9 월부터 10 월, 가구 관련 전시회가 열리는 4 월은 호텔 예약과 관련 업체 면담이 어려우므로 출장 계획 수립 시 주의해야 한다.
- 일반적인 근무 시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 08:00~14:00(토, 일 휴무)
 - 은행: 08:30~13:30, 15:00~16:00(토, 일 휴무)
 - 주유소:
 - 10 월~4 월 07:00~12:30, 15:00~19:00,
 - 5 월~9 월 07:00~12:30, 15:30~19:30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Self-Service 는 24 시간 이용 가능
 - 세탁소: 09:00~13:00, 15:30~19:30(일, 월요일 오전 휴무)
 - Supermarket 은 점심시간 없이 보통 10:00(이른 곳은 08:00)~20:00 까지 영업함.

다. 도량형

- 미터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기본 도량형은 동일하다.

도량형

측정 물리량	단위
길이	mm, cm, km
무게	mg, kg
넓이	cm ² , m ²
부피	cm ³ , m ³ , km ³ , L, cL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 비자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재외 공관장이 발행하는 입국허가증으로,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체류 기간이 90 일 이내라면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 EU 내 15 개 국가는 쉥겐 조약 (Schengen Treaty)을 체결하여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및 체류 관리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 동 조약은 어느 일방 조약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제 3 국민에게 최초 입국일자로부터 90 일간 전 조약 체결 국가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쉥겐 조약국을 무비자로 관광 체류할 수 있으나 총 체류 기간이 입국한 날짜로부터 6 개월 간 90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90 일 이상 체류하는 유학이나 취업의 경우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발급의 자세한 절차는 이탈리아 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398, 전화: 02-796-0491~4).

2) 입국 절차

- 비행기에서 내린 후 Arrivi(도착) 표시를 따라가면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게 된다. 입국 심사대는 EU 여권 소지자와 그 외 지역 여권 소지자가 수속하는 창구로 나뉘어 있으며, 한국인은 그 외 여권 소지자가 수속하는 창구에서 수속해야 한다. 보통 관광객이나 단기 출장의 경우 입국 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통과된다.
-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에는 타고 온 항공편 명이 표시된 벨트 컨베이어에서 짐을 찾고 세관으로 향하게 되는데 세관검사는 자진 신고제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출구로 나간다.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에 환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장 중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인근 경찰서에 분실 신고(여권 번호 기재 요망)를 한 후 경찰서 분실 신고서, 여권용 사진 2 매, 신분증을 지참하여 로마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여행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공항에서 밀라노 시내로 가는 방법

- 말펜사 공항의 경우 말펜사 공항-밀라노 카도르나 역을 운행하는 고속열차인 말펜사 익스프레스를 이용하게 되면 45 분 정도면 밀라노 시내에 들어올 수 있으며 말펜사 공항-밀라노 중앙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약 1 시간 정도 소요된다.
- 리나테 공항의 경우 리나테 공항-밀라노 중앙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약 30 분이 소요되며 시내 버스를 이용할 경우 리나테 공항-산바빌라 광장을 운행하는 73 시내 버스를 이용하면 소요 시간은 약 30 분이다.

4) 예방 접종

- 별도 예방 접종은 필요 없다.

5) 재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로마)

□ 주소

- Via Barnaba Oriani 30 – 00197, Roma, Italy(로마 시내 북쪽 Parioli 지역에 위치)

□ 전화/팩스번호

- 대표 전화: (국가번호 39) 06-802 461
- FAX 번호: 06-8024-6259
- 영사과 전화 번호: 06-8024 6223(여권.비자)
- 영사과 FAX 번호: 06-8024-6262
- 휴일 여권 분실: 340-5817948

□ 근무 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2:30, 14:30-17:30
- 영사과 근무 시간: 월-금, 09:30-12:00, 14:30-16:30

6) 재 이탈리아 한국 총영사관(밀라노)

□ 주소

- Piazza della Repubblica 11/A – 20124, Milano, Italy(밀라노 시 2 순환도로, Repubblica 역 인근에 위치)

□ 전화/팩스번호

- 대표 전화: (국가 번호 39) 02-2906 2641
- FAX 번호: 02-6291-1704
- 영사과 전화 번호: 02-2906 2641(여권, 비자)

□ 근무 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2:30, 14:00-17:00
- 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09:30-12:00, 14:00-16:30

마. 환율/환전

1) 통화 단위 및 종류

- 통화 단위는 유로화 이고 통화의 종류는 지폐(500유로, 200유로, 100유로, 50유로, 20유로, 10유로, 5유로)와 동전(2유로, 1유로, 50유로센트, 20유로센트, 10유로센트, 5유로센트, 2 유로센트, 1유로센트)이 있다.

2) 환전

- 환전 장소는 공항, 호텔, 은행, 거리의 환전소 등이 있다.
- 환전은 보통 공항, 호텔, 은행, 관광지나 역에 위치하고 있는 환전소에서 할 수 있다. 호텔이 일반적으로 환율이 가장 불리하며, 은행이 가장 유리하나 은행 환전의 경우 수수료를 받으며 호텔이나 거리의 환전소는 보통 수수료를 받지 않으나 환율이 불리하다.
-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여러 차례 환전하며 수수료와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한번에 일정 금액을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달러는 현지에서 통용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로로 환전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출입국 시 공항에서 환전을 미리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 이탈리아 은행 근무 시간은 은행마다 상이한데 보통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12 시 30 분까지 영업 후 문을 닫고 다시 오후 3 시부터 4 시까지 문을 열어 일부 은행의 경우 들어가기 전에 은행 앞에 설치된 사물함에 가방을 넣고 들어가야 하며 몸에 금속제의 물건이 있으면 전자식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곳도 있다.
- 참고로 환율 계산기의 웹사이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Economist 紙 홈페이지: http://www.economist.com/markets/Currency/Index.cfm?city_id=MIL

3) 신용카드

- 비자나 마스터 카드가 있으면 물품 구입에 불편이 없으며, 대부분의 은행 창구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호텔이나 렌터카를 예약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카드마다 하루 인출 액수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직불카드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 가운데 국제용으로 Plus, Cirrus 마크가 찍힌 것을 이용하면 이탈리아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결제는 그날 그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나 단 1 회 인출 한도액과 수수료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바. 교통/통신

1) 항공편

- 밀라노의 경우, 대한항공이 서울-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운항한다. 동 대한항공 비행편은 바로 로마행으로 연결된다. 일본 나리타 공항 - 밀라노 말펜사 공항간 직항편도 있으며, 약 13 시간이 소요된다.
-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등 다른 유럽 도시를 경유하여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 도착할 수 있다. 파리에서 2 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2 시간, 취리히에서 1 시간 30 분, 암스테르담에서 2 시간 30 분 가량 소요된다.

- 이탈리아에는 대한항공, Air France, Nippon Air, British Air, Cathay Pacific, Delta Airline, Finnair, JAL, KLM, Lufthansa, Singapore Airlines, JAL 등이 취항하고 있다.

2) 시내교통

□ 지하철

- 밀라노와 로마는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로 지하철을 통해 대부분의 관광지과 비즈니스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다. 밀라노 지하철 노선은 총 3 개로 1 호선 붉은색, 2 호선 초록색, 3 호선 오렌지 색으로 구분된다. 지하철 역에는 M 자가 붙은 붉은 표지판이 있어 쉽게 눈에 띈다.
- 출장 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노선은 1 호선과 3 호선으로 1 호선에는 밀라노의 중심인 두오모(Duomo)역을 비롯 스포르체스코 성이 있는 카이롤리(Cairolì)역과 밀라노 전시장(Fiera Milano)로 이어지는 로(Rho)역이 있으며 3 호선에는 밀라노 철도 교통의 중심인 중앙역(Centrale F.S.), 패션과 명품의 거리로 이어지는 몬테 나폴레오네(Monte Napoleone)역이 있고 1 호선과 3 호선은 두오모(Duomo)역에서 교차한다.
- 승차권은 지하철 역에 있는 자동 발매기나 티켓 판매소 또는 T 마크가 있는 타바키나 일부 신문 가판대(Edicola)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밀라노 지하철 승차권은 지하철, 버스, 트램 공통이며 1 회 승차 시 요금은 1 유로이며 75 분간 유효하다. 현금 승차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한편 지하철 승차권인 1 회권, 1 일권, 카르네(Carnet)로 불리는 10 회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출장 기간과 목적에 맞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하철을 탈 때에는 개찰구에 있는 개찰기에 반드시 개찰을 하고 승차권에 날짜와 시간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진행 방향의 종점역과 그 방향의 지하철이 들어오는 플랫폼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승차해야 한다.
- 지하철에서 내리면 다시 개찰구로 나와야 하는데 한국과 달리 다시 표를 제시하거나 찍을 필요 없이 그냥 바를 밀고 나오면 된다.
- 이탈리아 출장 시 자주 가게 되는 밀라노 Rho 전시장은 시외각에 있어 2 구역 지하철표를 구입해야 한다. 가격은 2.05 유로로 갈 때 2 장을 구입하여 갈 때 1 장, 올 때 1 장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시회장은 붐빌 때가 많아 표 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할 지하철 노선은 1 호선 붉은색 노선이며 하차할 역은 Rho 역이다.

□ 버스

- 3 개 노선인 지하철과는 달리 버스는 노선이 많으며 시내 전 지역을 운행하고 있다. 색깔은 오렌지색이며 지하철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과 달리 노선이 복잡한데다 한국과 달리 차내 방송이 거의 없어 처음 이용하는 출장자는 이용이 쉽지는 않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노선을 꼭 확인해야 한다.
- 또한 한국과 달리 현금 승차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승차권을 구입하여 승차해야 한다. 승차한 다음에는 버스 뒤쪽에 있는 개찰기에서 개찰해야 하며 하차는 한국과 비슷하여 내릴 곳이 가까워지면 벨을 누르고 내리면 된다. 버스표는 75 분 내에서 다른 버스나 트램으로 계속하여 갈아 탈 수 있다.

□ 택시

- 출장 시 가장 이용이 편리한 교통편인 택시는 콜택시제로 운영되고 있어 전화로 직접 부르거나 호텔, 식당, Bar 등에서 호출을 부탁하면 된다. 밀라노 지역에는 주로 02-4040, 02-6969, 02-8585 등의 전화번호를 이용한다. 기본 요금은 3 유로이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부과된다. 시내 중심부 두오모역에서 중앙역까지 약 8~10 유로 정도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에서 약 10km 떨어진 리나페 공항까지는 약 15~20 유로가 나온다. 말펜사 공항까지는 정액으로(75 유로) 운행된다.
- 참고로 택시를 이용할 때 반드시 tip 을 줄 필요는 없으나 팁을 줄 경우 센트 단위 요금을 반올림하여 주는 정도가 보통이다. 또한 택시를 부를 경우 부르는 순간부터 요금이 올라가므로 택시가 도착했을 때 기본 요금이 3 유로보다 높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 트램

- 시내 구석 구석을 달리는 전차로서 서점 등에서 노선도를 구입할 수 있다. 승차권은 버스, 지하철과 공용이며 승차권을 구입해 처음 탈 때는 차 안에서 개찰해야 한다.

□ 철도

- 중앙역을 이용하면 각 지방 여행이 가능하며 승차권은 역의 창구나 여행사에서 구입하며 역에는 자동 발매기도 있다. 역의 창구에서는 승차권을 2 개월 전부터 출발 시각 3 시간 전까지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열차 타는 방법

- 승차권 구입: 승차권 종류를 정한 뒤 승차권 매표소 앞에 줄을 서서 승차권을 구입
- 개찰: 플랫폼 입구에 있는 노란색 개찰기에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승차권을 집어 넣어야 하며, 표기가 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됨.
- 플랫폼 확인: 출발(partenza) 게시판을 보고 자신이 탈 열차의 출발 플랫폼을 확인
- 승차: 승차권을 보고 몇 호 차인지 확인 후 탑승. 예약이 아닌 경우에는 예약석(Posto prenotato)이라는 표시만 없으면 어디에도 앉을 수 있음.

3) 우편

- 우편물의 경우 주소는 한국어로 적어도 되나 항공편으로 보낼 경우 ‘Per Via Aerea’ 라고 반드시 적어야 하며 우표는 T자 간판이 붙은 타바끼, 호텔 프런트에서 구입 가능하다. 우체국 영업 시간은 규모가 큰 시내 중심 우체국은 월~금 08:30~19:00, 토 08:30~12:00이며 기타 지국은 월~금 8:30~14:00, 토 8:30~12:00까지 영업한다.
- FEDEX나 DHL 등 다국적 기업의 국제 택배를 이용할 수도 있다.
 - DHL 연락처: 0275 4119 1
 - FEDEX 연락처: 800.123.800

4) 전화

- 공중전화는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전과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카드는 매점, 타바끼(Kiosk) 등에서 판매하며 이용 방법은 발행 회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한쪽 모서리를 떼어 낸 후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카드 잔액이 표시되면 번호를 눌러 통화하면 된다.
- 국제전화는 보통 선불카드를 이용하는데 카드 뒷면에 있는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구입한 금액만큼 통화가 가능하다. 공중전화, 일반전화, 호텔 객실에서도 통화가 가능하여 이용이 편리하다. 통화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보통 10 유로, 5 유로 카드가 일반적이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카드는 Bright Card 나 Wisecalling Card 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 비즈니스의 중심이자 관광지이기도 한 밀라노는 1 성~5성급까지 호텔이 다양하나 가격은 여타 유럽 지역에 비해 비싼 편이다.
- 패션 관련 전시회와 행사가 집중되는 2 월 중순부터 3 월 하순, 9 월부터 10 월, 가구 관련 전시회가 열리는 4 월은 호텔 수요가 매우 높으므로 숙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한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휴무를 실시하는 7 월과 8 월에는 중급 이하의 호텔들도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출장 시 확인이 필요하다.

□ 예약 방법

- 출장 전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서 직접 예약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호텔 가이드 웹사이트 에서 적당한 호텔을 찾아서 예약할 수 있다. (www.hotelguide.com)
- 팩스로 예약할 경우 숙박 기간, 숙박 인원, 원하는 객실 형태, 예약을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번호 등을 기입하여 팩스로 송부하면 예약할 수 있다. 단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빨리 호텔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무단으로 취소할 경우 벌금이 신용카드에서 인출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 호텔 연락처

- 미켈란젤로(Michelangelo) 호텔
 - 4성급, 전화 39-02-67551, 싱글 145 유로, 더블 185 유로
- 소페르가(Soperga) 호텔
 - 3성급, 전화 39-02-669-0541, 싱글 80~160 유로, 더블 90~212 유로
- 사라(Sara) 호텔
 - 3성급, 전화 39-02-20-17-73, 싱글 45~52 유로, 더블 68~75 유로

2)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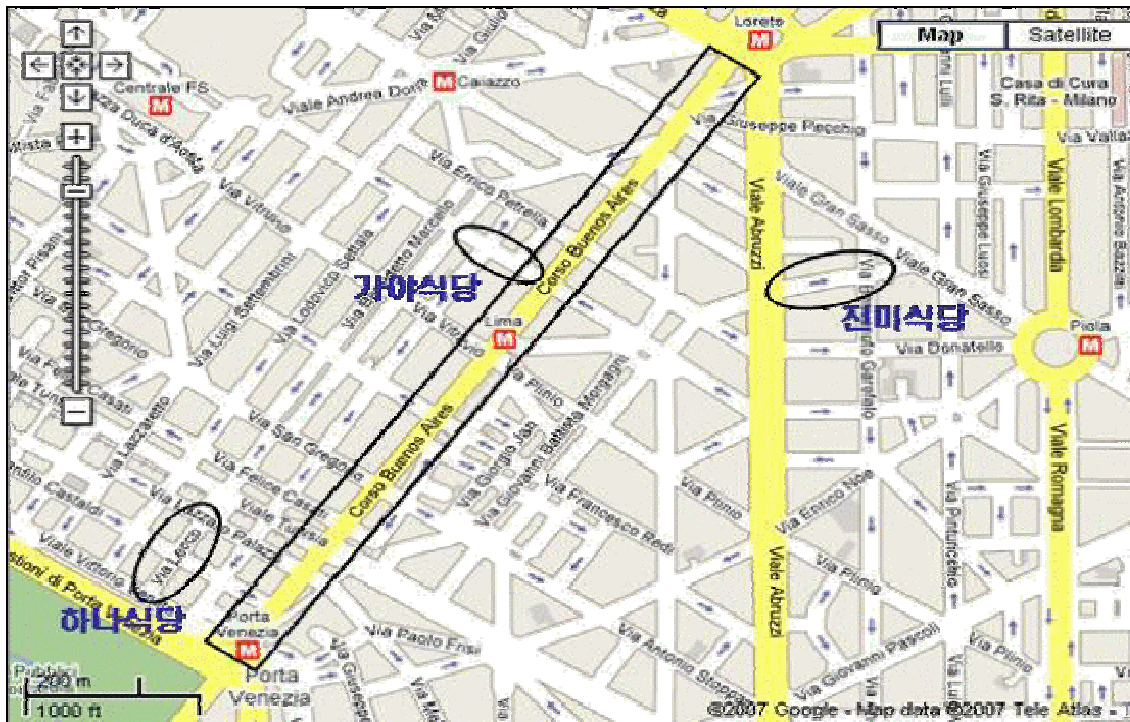
- 피자과 스파게티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듯이 이탈리아는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부터 고급 음식점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 가장 일반적인 리스토란테(Ristorante)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레스토랑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급 식당까지 종류가 많다. 안티파스토(Antipasto, 전채), 프리모피아토(Primo piatto), 세콘도피아토(Secondo Piatto), 돌체(Dolce, 후식) 코스 전체나 코스 중 일부를 선택해 식사를 하게 된다.
- 프리모피아토에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탈리아 요리인 스파게티를 포함한 각종 파스타, 리조또 등 해당되고 세콘도 피아토에는 야채를 곁들인 고기나 생선이 나온다.
- 보통 식당에서의 저녁식사는 8 시부터 시작되며 중국 식당의 경우 빨리 영업을 시작하는 곳은 7 시부터 문을 여는 곳도 있으므로 바이어와 저녁 식사 미팅을 잡을 때는 우리와는 다른 식당 영업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인 피자를 파는 곳은 피제리아(Pizzeria)인데 리스토란테처럼 정식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테이크 아웃 형식으로 사 갈 수도 있다. 또한 역 주변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는 조각 피자를 파는 곳도 있는데 출장 중 간단히 요기를 하거나 경비를 아끼고 싶을 때 적당한 식당이다.
- 한편 따볼라 깔다(Tavola Calda)라고 쓰여진 식당이 있는데 이곳은 미리 조리된 요리 중에서 골라 먹는 음식점으로 보통 커피나 음료를 파는 바(Bar)에서 간단한 식사를 팔 때 주로 따볼라 깔다의 간판을 볼 수 있다.
- 식당 팁의 경우 고정 비율이 없으며 식사 메뉴에 따라 1.5 유로 내지 5 유로 정도 지불하면 되지만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식당에서 식수는 유로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2~3 유로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식수로 수돗물은 석회분이 있어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좋다.
- 식당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바(Bar)가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바에 들러 카푸치노(Cappuccino)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길 가다가도 바에 잠시 들러 설탕로 에스프레소(Espresso) 한잔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바에서는 이탈리아의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는 파니니(Panini)도 팔고 있어 간단한 식사도 해결 할 수 있다.
- 참고로 바에는 서서 먹는 것이 기본이며 바 안에 테이블이 있어도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 한식당

- 하나(일요일 휴무)
 - 주소: Via Lecco 15, Milano, 전화: 39-02-295-232-27
- 진미(일요일 휴무)
 - 주소: Via Paisiello 7, Milano, 전화: 39-02-29-516-394

- 가야(수요일 휴무)
- 주소: Via D. Scarlatti 3, Milano, 전화: 39-02-2953-1106

한국 식당 약도



□ 중식당

- 옥원
- 주소: Via Palazzo Reale 5, Milano, 전화: 39-02-805-38-91
- 홍콩
- 주소: Via Schiapparelli 5, Milano, 전화: 39-02-6701992

□ 일식당

- 젠
- 주소: Via Maddalena 1, Milano, 전화: 39-02-8901-3557
- 하나비
- 주소: Via Francesco Sforza 14, Milano, 전화: 39-02-782-610

□ 이탈리아 식당

- 사비니
- 주소: Galleria V. Emanuele II, 전화: 39-02-72003433
- 펍
- 주소: Via Victor Hugo 4, 전화: 39-02-861040

- 일 사로토
 - 주소: Via Baracchini 9, 전화: 39-02-860-357
- 안젤로
 - 주소: Via Angello 8, 전화: 39-02-864-61-654
- 8 월에는 이탈리아 대부분 식당이 2~3 주 휴가에 들어가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 기간

- 번거로운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하여 일 처리가 매우 더디고 비효율적이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많은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일부 지방정부에서 도입되고 있는 'One Stop Shop(Sportello Unico)'이다.
- 이곳에서는 이탈리아 투자에 필요한 정보나 인허가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 사항

-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담당자를 만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행정 관행

- 처리 기간이 매우 느리고, 행정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소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영수증 및 확인증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자. 공휴일

1) 공휴일 (2009년)

일자	공휴일 명	대상 지역
1월 1일	신정 (NEW YEAR'S DAY)	전국
1월 6일	주현절 (EPIPHANY)	전국
4월13일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EASTER MONDAY)	전국
4월25일	이탈리아해방기념일(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전국
5월 1일	노동절 (LABOUR DAY)	전국
6월 2일	REPUBLIC DAY	전국
6월 24일	ST.GIOVANNI DAY	피렌체,제노바

일자	공휴일 명	대상 지역
6월 29일	ST.PETER AND PAUL DAY	로마
7월 15일	ST. ROSALIA'S DAY	팔레르모
8월 15일	성모 승천일 (ASSUMPTION DAY)	전국
9월 19일	ST. GENNARO DAY	나폴리
11월 1일	만성절 (ALL SAINT' DAY)	전국
12월 7일	ST. AMBROGIO'S DAY	밀라노
12월 8일	성모 수태일 (IMMACULATE CONCEPTION)	전국
12월 25일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Natale)	전국
12월 26일	산스테파노의 날 (ST. STEPHEN'S DAY)	전국

2) 출장 지양 기간

- 이탈리아 업체 대부분이 휴가를 실시하는 8 월, 연말 연시 연휴가 많은 12 월 하순, 1 월 초순은 출장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차. 여행시 유의 사항

- 도난과 분실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출장 기간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기름진 식사로 인한 질병에도 주의해야 한다. 치안이 나빠 주의해야 할 지역으로는 대도시 중앙역, 환승역,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등이 있다.
- 도난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중앙역, 환승역,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등 치안이 나쁜 곳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고급 브랜드 제품의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다니는 등 눈에 띄는 행동과 화려한 옷차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특히 공항 또는 역에서는 도착 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척하다 금품을 훔쳐 달아 나거나 길을 물어보는 척하거나 옷에 음식물 등의 이물질 묻혀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지갑 등을 훔치는 소매치기 피해가 빈번하다. 공항·역 등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가급적 무시하고 사람이 많고 밝은 쪽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할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접근하여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 낸 후 타이어 교체를 위해 정차한 차량을 도와주는 척 접근한 후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사례가 수 건 발생한 바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자동차 펑크가 나면 주위가 밝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여 타이어를 교체 하거나 차에서 나오지 말고 렌트카 회사에 직접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이어 교체 중에는 차문을 잠그고 귀중품에 주의해야 한다.
- 여권, 항공권, 짐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 증명서 Denuncia di Furto’를 작성해야 하며, 이 절차가 없으면 여권 등을 재 발행할 수가 없다.

1) 여권의 분실과 도난

- 위에서 발급받은 도난 증명서를 가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대부분 여행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 체류 중인 여행자에게는 여권 발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여권 재발급 대신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2) 항공권의 분실과 도난

- 항공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수수료를 내면 항공사 지점에서 재발급해 준다.
분실한 항공권 번호를 알고 있으면 재발행을 받기 쉬우므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3) 신용카드의 분실과 도난

- 훔쳐간 사람이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즉시 신용 카드회사에 연락해 사용 정지 처분을
한 뒤 카드사의 현지 사무소로 가서 재발행 수속을 해야 한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긴급 전화

- 경찰(헌병 경찰): 112
- 경찰(지방 경찰): 113
- 화재 신고: 115
- 구급차: 118

2) 생활 정보 전화

- 정확한 시보: 4161
- 모닝콜: 114

3) 택시 번호

- 02-4040
- 02-6969
- 02-8585

4) 주요 공항

- 로마
 - Leonardo da Vinci(Fiumicino) : 39-06-659-53640
 - Cimapino : 39-06-794941
- 밀라노
 - Linate : 39-02-7012-4451 <http://www.sea-aeroportimilano.it>
 - Malpensa : 39-02-7485-4215 <http://www.sea-aeroportimilano.it>

5) 한인회, 단체, 협회, 항공사

- 북부 이태리 한인회: 39-02-3664-0700
- 로마 한인회: 39-06-445-7605
- 제노바 한인회: 39-339-4421 738
- 이태리 한인 경제인 협회: 39-02-3168-886
- 대한항공: 로마 39-06-65955952~3, 밀라노 39-02-72095654

6) KOTRA 밀라노 KBC

- 주소: Via Larga 2, 20122 Milano, Italy
- 전화: 39-02-795147, 795813, 796384
- 팩스: 39-02-798235

타. 관광 명소

1) 밀라노

□ 밀라노 대성당

- 높이 157m, 너비 92m 에 이르는 거대한 고딕 양식의 성당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로 5 개의 문중 중앙문은 천국의 문으로 불리고 이 성당에 있는 모든 문은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교회가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밀라노 대성당은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와 장미창이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Castello Sforzesco)

- 비스콘티 가문이 거주하기 위해 밀라노에 최초로 지은 성으로, 1450 년 비스콘티 가문의 통치가 끝난 뒤 밀라노의 통치자였던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위압적인 외관과 멋진 내부를 결합시켜 건설한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이다.
- 19 세기 동안 이 성은 수 차례 보수되어 여전히 화려하게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내부에는, 훌륭한 박물관이 들어서 있으며 이 박물관에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의 마지막 작품인 피에타 롬다니니(Pieta Rondanini)와 같은 뛰어난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

- 지하철 몬테 나폴레오네 역에서 산 바빌라 역을 연결하는 약 500m 의 거리 양쪽에 세계적인 고급 명품 매장들이 많다.

□ 스피가 거리

-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와 나란히 있는 스피가 거리에는 세계의 패션 흐름을 알 수 있는 최첨단 브랜드와 캐주얼 브랜드가 모여 있다.

□ 산탄드레아 거리

-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와 스피가 거리를 연결하는 산탄드레아 거리에는 대형 브랜드와 전위 적인 브랜드, 전문점 등이 줄지어 있다.

□ 브레라 지구

- 미술 대학이 있는 브레라 지구에는 참신한 감각의 액세서리 전문점이나 센스가 뛰어난 인테리어 가게 등이 흩어져 있다.

2) 베네치아

□ 산마르코 대성당(Basilica San Marco)

- 베네치아 시 중심의 산마르코 광장 정면에 있는 성당으로 2 명의 상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온 성마르코 유골의 납골당으로 세워진 것(829~832)인데 11 세기 말에 현재의 산마르코 성당이 재건되었는데 이 재건공사에 롬바르디아의 건축가와 석공이 상부 구조 건축에 참가했으며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유명하다.
- 외부와 내부를 뒤덮듯 장식된 모자이크 벽화는 12~17 세기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미술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이다. 내부는 그리스 십자형 위의 다섯 개의 큰 원천정으로 되어 있고 성마르코의 업적을 말해주는 12~13 세기의 그림을 비롯하여 티치아노의 바탕그림에 의한 모자이크 등이 장식되어 있다.

3) 피렌체

□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Chiesa di Santa Maria Novella)

- 1456~1470 년에 건축가 알베르티가 완성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파사드는 우아하고 아름답게 균형 잡힌 비율과 색대리석판을 사용한 장식이 특징이다.

□ 베키오 궁전

- 1298 년에 착공하여 몇 번에 걸친 개수를 하여 16 세기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피렌체 공화국(토스카나 공화국)의 청사였던 건물로, 현재도 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대청 양쪽 벽면은 바사리와 그 일파가 그린 메디치의 전투 장면이 있다. 3 층에는 기를란다요의 로마 영웅들의 프레스코화가 있고, 그 밖에 마키아벨리의 초상화, 프란체스코 1 세의 방, 지구의 방 등 옛날 피렌체의 부와 힘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이 많다.

4) 로마

□ 베네치아 광장(Piazza Venezia)

- 빅토리아 임마누엘 2 세 기념관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이탈리아 초대 국왕인 빅토리오 엠마누엘 2 세의 즉위를 기념해서 건립되었다. 정면의 기마상이 엠마누엘 2 세이며 계단 서쪽에 세워진 동상 중 우측은 '조국애의 승리', 좌측은 '노동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 건물 제일 높은 층의 상부에는 이탈리아 주요 도시의 상징이 올려져 있고 양측의 커다란 두 개의 문 위에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있다.

□ 콜로세움

- 정식 명칭은 홀라비오 원형극장(圓形劇場)으로 홀라비오 황제 때 세워진 것이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80 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에 완성되었다. 제정기(帝政期)로마의 복받은 로마 시민의 오락시설로서, 여기에서는 글라디아토르(劍闘士)의 시합, 맹수연기(猛獸演技) 등이 시행되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이탈리아 관광청(www.enit.or.kr)을 참조바람)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이탈리아 주요 전시회 정보 참고처

- 전시정보종합 검색: <http://www.gep.or.kr>
- 전시장별 홈페이지
 - 밀라노전시장: <http://www.fieramilano.it>
 - 볼로냐전시장: <http://www.bolognafiere.it>
 - 파르마전시장: <http://www.fiereparma.it>
 - 제노바전시장: <http://www.fiera.genova.it>
 - 피렌체전시장: <http://www.firenzefiera.it>
 - 토리노전시장: <http://www.lingottofiere.it>
 - 포르테노네전시장: <http://www.fierapordenone.it>
 - 프로모베르그전시장: <http://www.promoberg.it>
- 주요 전시회별 홈페이지
 - 밀라노광학전시회: <http://www.mido.it>
 - 볼로냐미용박람회: <http://www.cosmoprof.it>
 - 밀라노가구전시회: <http://www.cosmit.it>
 - 밀라노신발전시회: <http://www.micamonline.com>
 - 볼로냐신발부자재전시회: <http://www.lineapelle-fair.it>
 - 볼로냐신발기계전시회: <http://www.simac-fair.com>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정부부처

- 이탈리아 정부 디렉토리(Italian government)
 - 홈페이지: <http://www.governo.it>
- 부처별 홈페이지
 - 외무부: <http://www.esteri.it>
 - 내무부: <http://www.interno.it>
 - 국방부: <http://www.difesa.it>
 - 재무부: <http://www.mef.gov.it>
 - 경제개발부: <http://www.sviluppoeconomico.gov.it>
 - 농림부: <http://www.politicheagricole.it>
 - 환경국토수산부: <http://www.minambiente.it>
 - 사회간접자본/교통부: <http://www.infrastrutture.gov.it>
 - 법무부: <http://www.giustizia.it>
 - 노동복지부: <http://www.lavoro.gov.it>
 - 교육부: <http://www.pubblica.istruzione.it>
 - 문화부: <http://www.beniculturali.it>

□ 공공부문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http://www.istat.it>
- 이탈리아 무역공사(ICE): <http://www.ice.it>
- EU 집행위: <http://www.europa.eu.int>

□ 상공회의소, 조합 단체

-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연합: <http://www.unioncamere.it>
- 이탈리아 안경협회(ANFAO): <http://www.anfao.it>
- 이탈리아 전자공업협회(ANIE): <http://www.anie.it>
- 이탈리아 자동차공업협회(ANFIA): <http://www.anfia.it>
- 이탈리아 수입자동차협회(UNRAE): <http://www.unrae.it>
- 이탈리아 오토바이협회(ANCMA): <http://www.ancma.it>
- 이탈리아 신발산업협회(ANCI): <http://www.anci-calzature.com>
- 이탈리아 자동포장기계협회(UCIMA): <http://www.ucima.it>
- 이탈리아 섬유산업협회: <http://www.sistemamodaitalia.it>
- 이탈리아 면섬유협회: <http://www.asstex.it>
- 이탈리아 금형조합: <http://www.assocomplast.com>
- 이탈리아 플라스틱생산협회: <http://http://www.unionplast.org>

□ 기업 디렉토리

-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연합업체정보: <http://www.infoimprese.it>
- 이탈리아 전화번호부: <http://www.paginegialle.it>, <http://www.paginebianche.it>

□ 금융기관

- 이탈리아 중앙은행: <http://www.bancaditalia.it>
- 이탈리아 외환국: <http://www.uic.it>
- 이탈리아 상업은행: <http://www.bci.it>

□ 언론기관

- Il Sole 24 Ore: <http://www.ilsole24ore.com>
- Corriere della Sera: <http://www.corriere.it>
- Italia Oggi: <http://www.italiaoggi.it>